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1서 4장 7절)



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땅처럼 때로는 큰아들처럼 하 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된 습성대로 살 때가 있지 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자녀 로 삼아주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8호 2013년 11월 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탕자에 베풀어지는 '과도한' 아버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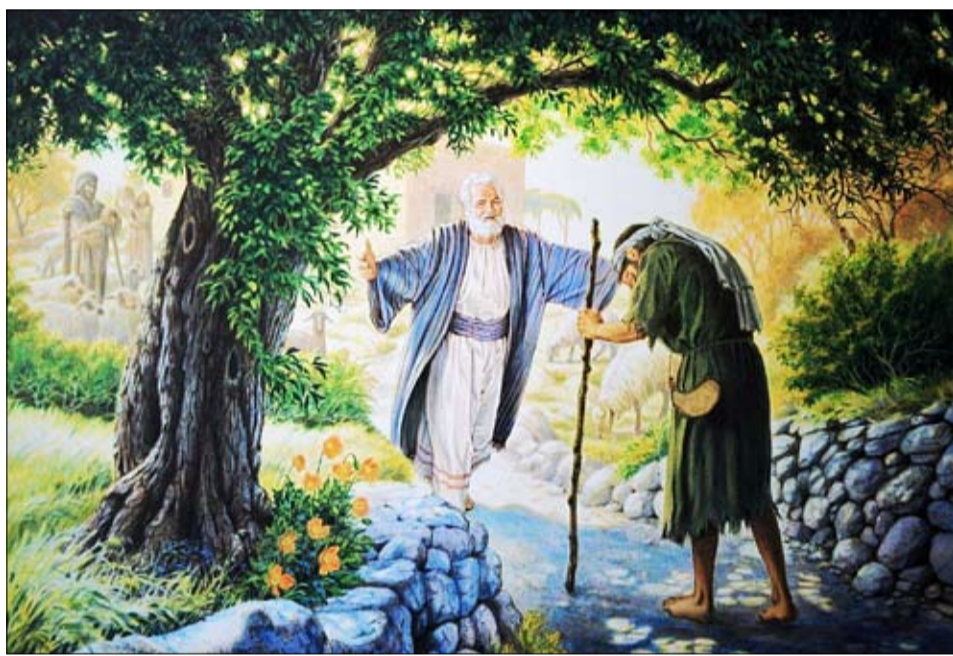
CT, '탕자의 가족, 친구...남은 우리는 누구인가?' 보도

2011년 '종교와사회저널'(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그리스도인 1/3이 평생 한 번은 기독교를 떠난다. 소위 "떠난 사람", "역개종자", "전그리스도인" 등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교인 감소를 겪고 있는 다양한 교파들의 새로운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여론 조사자와 블로거들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신앙에 대한 지적 고민, 교회 리더들의 부도덕하고 불관용적 태도, 극심한 고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인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최소한 누가복음 15:11-32절에서 예수께서 말한 탕자의 비유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다면 탕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까? 떠난 탕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에 남아 가족과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동생'이 떠난 후에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는 나머지 2/3를 위한 신학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은 현재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남편이, 딸이, 아들이 교회를 등졌을 때, 우리는 큰아들과 아버지 중 누구처럼 행동하게 될까 혹시 우리 역시 탕자인 것은 아닐까?"라고 리버티대학교 영어학과 교수인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Karen Swallow Prior)는 반성과 함께 탕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해준다(Prodigal Love: What to Do When Family or Friends Have Rejected Jesus).



하나님의 사랑앞에 우리는 모두 탕자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한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탕자가 자녀든, 형제나 배우자든, 부모든, 친구든 이야기의 핵심은 동일하다. P. C. 에니스 주니어가 '목회자저널'(Journal for Preachers)에서 "주기적으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를 해야 한다... 부활절 이야기나 크리스마스 이야기처럼 탕자의 비유도 복음의 정수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대변한다. 분개한 큰아들은 예수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을 연상시킨다. 탕자의 비유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탕자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나 큰아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존재가 결합된 복합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

우리 대부분은 큰아들과 같은 엄격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기울기 쉽다. 사실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공평과 정의라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보면 연약한 인간은 반항, 낭비, 음탕 같은 탕자의 품성을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런 방탕한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다.

헬무트 킬리케는 지금은 고전이 된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에 대한 주석에서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아버지의 후한 환대가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마20:1-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뒤늦게 도착한 자가 아침 일찍 나와

서 일한 자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를 원하지 만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혜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탕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탕자가 떠난 것이 자신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면으로 계속)



제44차 남가주교협정기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

제44회 정기총회, 수석부회장 후보 없어 추후 선출

남가주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 유철 목사) 제44회 정기총회가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박효우 회장은 "전임회장들이 훌륭하게 해온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별히 44회 교협에서는 사모특별위원회를 두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미 오랜 지카운티교협에서는 사모를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가주교협에서도 사모를 위한 행사를 마련해 남편 목회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고 있는 사모들을 위한 블레싱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 성지순례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미 이를 위해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는 손길이 있다. 따라서 작은 교회 목회자를 우선으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매년 이맘때쯤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있다. 성서화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아름답게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행사가 남가주교협에서 시작한 행사이니 만큼 교협이 나서서 이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협총회는 수석부회장 목회자 임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아 회장선출만 이뤄진 반쪽짜리 총회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29일 남가주교협 회의실에서 열린 44차 총회를 위한 공천위원회 모

임에서 수석부회장 후보가 없으므로 회장의 임기 중 임후보자가 나올 시에 현 공천위원회가 다시 모여 공천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원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회칙수정 등이 논의됐다.

교협회칙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째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회장이 공고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3장 10조),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다(3장 11조 1항). 또한 교협회칙에는 임시총회에 대한 회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임원들이 논의하고 결의한 44회 임기 중 수석부회장 선출은 위헌이 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회칙특별수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수정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수석부회장은 이날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동의하에 후보가 내정되면 임원단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장단 선출에 대해서는 과거 교단별로 순회하면서 회장선출이 됐던 점을 들어 특별수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45회 총회에서 통과여부를 묻기로 했다.

45회 총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에 남침례교, Assembly of God, KPCA 등 교세가 큰 교단에서 공천된 후보들과 중소교단들의 연합공천 후보를 내서 그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46회 총회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호 기자)



2면

이란, 친문화정책 발미 남미국가에 접근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CSK원장)



15면

사모길림-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CMF사모사역원 원장)



16면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오르간 교회음악 시리즈 II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 : 13)

Now, our God,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Chronicles 29 : 13)

ORGAN and PIANO DUETS for Thanksgiving

HOLY, HOLY, HOLY - John B. Dykes
 Fairest Lord Jesus - Silesian Melody
 Jesus, Joy of Man's Desiring - J. S. Bach
 O for a Thousand Tongues - Carl G. Glaser and T. Jarman
 Jubilate - Darwin Wolford
 Thanks Be to God - G. F. Handel
 It is Well With My Soul - Philip P. Blis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 Oliver Holden
 Fantasia on Thanksgiving Themes - Arr. Jerry Van Der Pol

Nov 24, Sun. 2013 7PM

장소 : 순례자의 교회
 4219 Pleasant Hill Rd. Duluth, GA 30096
 공연 문의 : 678 600 3202



Organist 장재원



Pianist 조혜진

주최: Pilgrim's Theological Seminary
 주관: Pilgrim's Theological Seminary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조선일보, 기독교일보
 아틀란타 교회음악협회



시론

다 감사드리세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감사절에 즐겨 부르는 “다 감사드리세”(NowThankWeAllOurGod) 찬송의 가사는 Martin Rinkart 목사가 1637년에 쓰신 것입니다. 당시 그는 독일의 Saxony 지방의 Eilenburg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30년 전쟁이 한창 중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세 번이나 심한 공격을 받았지만 보존되었고, 오히려 수많은 피난민과 부상당한 군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두 배, 네 배로 늘어나자 양식과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나마 있는 것들이 쥐와 벌레들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더욱이 흑사병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한동안 그 도시의 유일한 목회자였던 Rinkart 목사는 하루에 최고 50구의 시체를 장사지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이 찬송시를 적어나갔던 것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운 세상 기뻐하네/예부터 주신 복 한 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그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 너머로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때로 고통과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는 말씀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불순종과 죄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일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의 비리 사건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9.11테러사건이나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 만나 목숨을 잃고, 불경기에 사업이 넘어가고, 질병으로 고통 하는 일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통곡하며 애통해 해야 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빠져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서 주석가 Matthew Henry는 어느 날 노상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첫째, 전에 강도당한 일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그들이 내 지갑은 빼앗아 갔지만 내 생명은 빼앗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셋째,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 내 강도질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 자세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갈 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태양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는 어두운 그림자는 늘 우리의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 있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건강과 번영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저들도 그러한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저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Rinkart 목사의 찬송시의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 짜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란, 친문화정책 빌미 남미국가에 접근

워싱턴포스트, “반미성향 강한 남미 학생들 초청 세뇌” 보도

2011년 멕시코의 한 학생은 어느 모임에서 당시 멕시코에 주재하던 고위 이란 외교관에게 이슬람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수개월 후 이란으로 가는 비행기 표와 이란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됐다. 이란으로 간 카를로스(Carlos)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이란의 종교도시 콤(Qom)에 있는 '동양사상문화 연구소'(Oriental Thought Cultural Institute)라는 이슬람 학교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로로 이란에 오게 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출신 학생 25-30명을 만났다. 보안상의 이유로 '카를로스'라는 이름만 밝힌 그는 이 학생들 중 다수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이들이 반미 성향을 가졌다고 말했다. 카를로스는 이란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멕시코로 돌아온 후 이란에서 경험한 것을 세상에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는 보도한다(With lure of religious classes, Iran seeks to recruit Latin Americans).

이란은 최근 남미 국가들의 학생 수백 명을 자국으로 초청해 자국의 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는 국제적인 테러범으로 수배돼있는 인물이다. 이란은 서구에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렇게 학생들을 이란으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남미 국가에서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스페인어로 된 방송 프로그램도 송출하고 있다.

이란의 이러한 '문화정책'으로 반미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와 에콰



서방세계에 영향력 증대 일환...이란에 초청, 종교와 문화 가르쳐 남미주재 이란대사관 2배 이상 증가 · 문화센터 이슬람사원 건립

도르에 자국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남미 정보기관은 이란이 스파이와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할 요원을 양성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남미 국가에 이란이 결정한 지역 비밀정보 조직의 증거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종교와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테러 범주를 지원할 지역 조직을 만들고 있으며, 이란에서 남미 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물로 이란의 이슬람 성직자이자 정부 관리인 모센 람바니(Mohsen

Rabbani)를 지목했다. 람바니는 1994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5명을 죽게 한 유대인 지역 센터 폭탄 테러 사건을 지원한 인물이다. 이란은 이 보고서를 친 이스라엘 성향의 검사가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람바니는 서구에 강하게 저항하는 이란에 호감을 갖는 남미 청년들을 공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미국의 한 정보 단체는 2007년부터 1,000명 이상의 남미 청년들이 이란에서 람바니의 후원아래 훈련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이란에서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남미 청년은 아주 소수이다. 하지만 카를로스와 같은 소수의 학생들을 통해 이란과 이란의 종교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란에서 종교적, 정치적 사상을 습득해 이란에 충성적인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도 매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공식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물론 친미 언론인과 정치인 그리고 사회 지도자의 미국 여행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나라들도 문화와 학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란의 미국주재 유엔대표부의 미르유세피 대변

인은, 이란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처럼 아프리카, 아시아와 다른 지역으로부터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이란은 남미 주재 자국 대사관의 숫자를 2배 이상 늘렸다. 2005년 5개에 불과하던 남미의 이란 대사관은 현재 11개가 됐다. 그리고 이란은 17개의 문화센터와 많은 수의 이슬람 사원을 남미에 건축하고 있다. 또한 이란이 제작한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을 담은 스페인어 프로그램이 이란이 세운 텔레비전방송국(Hispan TV)을 통해 수백만 남미 가구로 송출되고 있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의 버만(Ihan Berman) 부위원장은 이란이 남미를 향해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전략을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러한 전략이 남미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아직 남미 국가의 정부들은 이란을 테러를 후원하고 핵 위협을 갖고 있는 나라로 여기고 있으며,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이란의 남미를 향한 영향력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남미의 국가들은 이란의 경제를 고려해 볼 때 자국을 지원해주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에서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위협을 받았던 멕시코 학생 카를로스는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카를로스는 3개월에 그친 이란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한때 멕시코에서 장래가 유망했던 카를로스는 이제 미국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콜로라도 주 포트 콜린스에 있는 팀바라인교회의 교육목사인 제프 루카스는 말한다. 스스로를 ‘탕자 친화적 교회’라고 부르는 팀바라인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주변에서 방황하는 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탕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다보면 부당한 죄책감이 시달리게 된다. 탕자를 회복시키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자 영역이다. ‘완벽한 부모’가 된다고 해서 자녀도 완벽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인류 최초의 반항아가 됐다.

한편 “현대의 탕자와 회복의 길(Engaging Today's Prodigal)”의 저자인 캐럴 바니어에 따르면 불행히도 가족이 믿음을 저버린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는 비밀유지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바니어는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 13년 동안 무신론자를 자처하다 극

적으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녀는 탕자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

한 강의실에 들어섰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along with degree program information.

큰아들 역시 탕자동생만큼 '귀향' 필요한 존재

CT, '탕자의 가족, 친구...남은 우리는 누구인가?' 보도

(2면에서 계속)
 정중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낯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그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 즉 수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안에 탕자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인 탕자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배척할까봐 염려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마니어는 말한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큰아들'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일은 중요하다. 교인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일은 탕자의 회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것은 "한번 시도해볼 만한 적극적인 방법이자,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라."

그러나 교회도 탕자나 탕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사역을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프 루카스 목사에 따르면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복음주의자들의 유산에서 비롯됐기에, 실제로 죄인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라져

뿐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루카스는 촉구한다. 루카스에 따르면 우리는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다. 우리 역시 절실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목사이자 기업가인 톰 파슨스 역시 같은 의견이다. "서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탕자들의 절반이 아직도 교회 신도석에 앉아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귀향이란 교회로 돌아오는 것

이다. 톰 파슨스는 경탄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광대한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포용하고도 남는다."
 결론으로, '방탕'(prodigality)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놓여 있다. '탕자'라고 번역되는 'prodigal'(방탕한)이라는 단어에는 '다량의', '아낌없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작은아들에게 적용될 때처럼 '낭비하는'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전달하지만 '과도한', '풍성한', '호화로운'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전



미 기독교인 1/3, "떠난 사람", "역개종자", "전그리스도인" 잘못이나 이해관계 철저히 외면한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뿐

버린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별한 기독교 전통과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는 '교회는 순결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에 맞서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바울 서신의 구절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죄악들이 이미 초대 교회부터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루카스는 지적한다. 현대 교회가 1세기의 교회와는 다를 거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큰아들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사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고 있었다—자신을 탕자와 동일시해야 한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존재 말이다. "우리는 자신이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탕자와 나누고 있을

이 아니라 돼지우리 안에서 탄식하던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일이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탕자의 귀향(Bringing Home the Prodigals)"의 저자인 파슨스는 지적한다. 큰아들 역시 모든 면에서 자신의 동생만큼이나 '귀향'이 필요한 존재였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던, 아버지의 발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큰아들도 탕자만큼이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헬무트 톨리케에 따르면 우리는 큰아들의 태도를 "점잖은 속물근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 쉽다. 그러나 자비로운 아버지는 "큰아들의 삶을 내면에서, 마음의 관점에서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큰아들의 분개를 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온전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신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반짝

달한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작은아들과 아버지라는 양극단의 존재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방탕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보여준다. 작은아들이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한결 같은 사랑은 '과도한'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과도도 현재의 이해관계도 철저히 외면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껏 낭비할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모종의 회유, 설득, 협박을 통해 탕자를 지혜로운 삶으로 복귀시키려는 시도조차 없다. 아무리고 통스러워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무한히 인내하는 사랑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바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탕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도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던 탕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모두 탕자들이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은혜 나누기'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인생의 발에서"

(시 104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가꾸십니다. 시편 104편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하셔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마땅히 감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시는 일을 하시고 산의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샘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는 새가 깃들고 가지에 앉은 새들로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공중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돌고 그리고 바람을 타고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어떤 짐승은 낮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어떤 짐승은 밤에 나와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교통정리를 하셔서 각각 먹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땅에 풍족하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풀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이 먹도록 채소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없이 보는 생각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의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전제 하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옛 사람의 생각의 습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이국 날가주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조금가면 바다가, 반대쪽으로는 산이, 또 멀지 않은 곳에 사막이 그리고 밤에는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공기청소도 해 놓으시고 마치 선풍기를 틀어서 먼지를 바다로 밀어내시듯 늘 새롭게 유지하십니다. 어느 청소부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새벽에는 새들도 잔다고 조용합니다. 밤중에도 새

가 지저귀게 된다면 사람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를 따라 그들로 잘 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노래 부르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배웁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이라 단어는 있지만 자연적이라는 것의 실체는 없습니다. 꽃이 자연적으로 자라니까? 동쪽의 해가 자기 스스로 자연적으로 떠오르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입니까? 사람은 모르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똑같은 속도로 돌다. 누가 돌리니까? 스스로 돌니까? 이동하는 차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멀리서 보면 차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의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차가 가는 것입니다.

대체 자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정원에서 우리가 살고 아버지가 수고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노동하시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도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 맞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도 죽습니다. 그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어느 누가 새벽마다 그것을 맞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수많은 촛불을 켜 놓으시고 촛불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큰 등을 달아 놓으셨지요? 또한 밤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너무 밝으면 안되므로 적당하게 모든 조명을 아버지께서 다 조절해주십니다. 태양의 열도 있어야 만물이 사니까 열이 나오고 빛 받으라고 빛이 나오고 그것 다 아버지께서 조절하십니다. 만일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타서 죽습니다. 또 조금만 차가워지면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빈틈없이 아버지께서 온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한 조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맡까지도 아버지의 관심이래 두신 것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만물을 세밀하게 가꾸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히 잘 돌보아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삽시다.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세 계 청 년 선 교 축 제

지킴 DEC. 25TH-28TH

WWW.GKYM.ORG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이사야 40:3

MAIN SPEAKERS

스티브 더글라스 CCC 총재	유은성 CCM 가수	헨리 오름비 로잔운동 체어맨	박형은(JIM-BOB PARK) 중앙 선교 교회 담임 목사	크레이그 오트 트리니티 선교학 교수	최마크 IN2 교회 담임 목사	로렌 커닝햄 국제 예수 전도단 공동 설립자	김정화 배우	김은열 (JOEL KIM) DEVOTION 교회 목사	티모티 레니악 골든케빌 교수	스타필드 크리스찬 찬양밴드	K.S. SAM C국 선교사, 교수
--------------------	---------------	--------------------	-------------------------------------	------------------------	---------------------	----------------------------	-----------	----------------------------------	--------------------	-------------------	------------------------

주관/주최 : GKYM INTERNATIONAL
 날짜 : 12월 25일(수) ~ 28일(토)
 장소 :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이상 청년 및 대학생

등록비 :
 1차 마감: 10월 31일까지 \$200
 2차 마감: 11월 30일까지 \$250
 3차 마감: 12월 23일까지 \$300

등록문의: GKYM USA
 Tel: 917-929-GKYM(4596)
 e-mail: rochestergkym@gmail.com
 *온라인 등록 www.gkym.org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따뜻한 밥

아침식사 초대와 받고 새벽예배를 마친 후 L장로님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식사는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부인 권사님 음식솜씨는 뛰어나서 맛있는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떡국을 준비하셨는데 특이하게 콩 국물을 만들어서 고소한 떡국을 먹었습니다. 보통 아침은 가볍게 먹는 편인 저희 내외지만 맛있는 떡

국을 두 그릇이나 비웠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장로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하시면서 연신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께서 "별 것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께서 자주 목사님 내외분을 모시라고 하네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맛에 안 맞는 것 먹

로 오라하면 싫던데... 괜히 아침부터 오셔서 잡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하시면서 부지런히 반찬을 나르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두 그릇을 비웠는데요?" 하면서 아내와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푸는 것도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 가져와 손을 잡아끌곤 했어요. 누가 가르쳐서 그랬겠어요? 아마 타고난 것 같아요"라고 아내가 옛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L장로님께서 과거에 죽을 위협에서 살아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한국에 사실 때 위낙손 대접하기를 즐겨하셨는데 어느 날 허름한 복장을 한 걸인에 가까이 행인이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식사를 하려던 차라 권사님께 상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서는 남편을 주려고 한 그릇 준비해놓은 밥밖에 없어 찬밥을 행인

에게 주고 준비해놓은 따뜻한 밥은 장로님자리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장로님께서서는 따스한 밥을 행인에게 주고 자신은 찬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행인은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절도범이 앞에 있는 아주머니 지갑을 훔치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절도범을 잡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장로님에게 덤벼들더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한 패거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용감히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속으로 외치는 순간 어디선가 느닷없이 한 사내가 나타나 건장한 패거리들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후에 뒤를 돌아보니 웬 멋진 신사가 장로님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나니 그 신사는 환히 웃으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르신" "

누구신지요?" "저는 그때 점심을 얻어먹었던 행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만 모습이 달라서..." "에 사실은 그때는 실직을 해서 특별한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던 처지여서 복장이..... 여러 집을 다녀봤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셨지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언제 은혜를 갚나 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지만 장로님의 따스한 밥 한 그릇이 본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살겠다고 하십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에 '은혜를 갚은 뱀'이란 동화가 생각납니다. 홍수로 떠내려가는 뱀을 구해준 농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뱀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우리가 혐오하는 동물이지만 농부는 그 뱀을 죽음에서 건져주었고 뱀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했다는 동화입니다.

최근 들어 이 미주에는 총기사

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LA공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은 잡혔지만 왜 그런 사고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 범인이 총격을 가하면서 사람들에게 "TSA(연 교통안전청) 사람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곳에 원인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지난 2월 LA경찰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크리스토퍼 도너도 원한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좀 더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어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 손잡고 따뜻한 밥 대접하려 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이신웅 목사

(서울 신길교회 담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5절 후반부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 나와 있고 16절에서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하시며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연관되어 우리가 항상 떠올리게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열납하셨습니다(창 4:4-5).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까? 신학 서적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흔히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열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짐승을 바쳐 희생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러 거기에는 생명과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이해하기도 힘들며 공감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주님

께서 희생과 헌신이 큰 것만 받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두 램돈을 바친 가난한 여인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셨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것은 그의 희생과 헌신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가인의 제사에 생명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린 제사, 즉 생명이 담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납되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두 분

제점이 드러납니다. 짐승의 생명만 생명이겠습니까? 식물에는 생명이 없습니까? 식물에도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반적인 견해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열납하셨습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은 보면 가인은 제물이 열납되지 않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나님 존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인격적인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가인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는 심령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제사는 영적으로 준비된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물 속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진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

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만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눈꺼풀은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닫힐 수 없는 심령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제사는 영적으로 준비된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물 속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진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

하시며 절기 시에는 '특별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당연한 것이며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고 말씀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50:23)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압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심령 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드러지는 삶, 높아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신간서적 가운데 서울여대 장모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감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우리 주님은 '감사하라'고 명령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17)

불지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병원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그 래도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감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값없이 거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라'고 명령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2013년 10월 21일 - 12월 13일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 -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세계적으로 폭력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의 워싱턴 해군기지에서도 아침에 일을 시작하던 사람들이 12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거의 같은 시간 지구의 반대편 케냐의 한 쇼핑몰에서 소말리아의 무장 테러범들에 의해서 60여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백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참혹하고 목지각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폭력은 통제하려는 강력한 열망에서 나온다.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할 때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파괴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잘못 믿는 것은 폭력

다이어는 폭력이나 살인을 정당화하고 미화한다. 폭력으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둔해진다. 소말리아의 테러분자들은 이미 군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족간의 전쟁들을 통해서 폭력 속에서 살아왔다. 이미 이들은 폭력에 무감각한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었다.

3) 폭력에는 인식적인 요소도 있다. 폭력적인 사람들의 이상과 신념은 매우 독특하다. 그들은 폭력과 강제적인 힘이 갈등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해 대하면 전투의 투자가 왕성해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여 주지 않으면

해서 폭력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Philip Jenkins 그의 저서 Dark Passages에서 Phyllis Tribble의 말을 인용하여 성경은 테러로 넘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평화롭고 사랑이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단이었던 Sinope의 Marcion의 주장과도 비슷하다. 여기에 반해서 Hemer는 구약의 폭력은 실수라고 말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성경은 폭력적인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의 전환의 느낌이고 아프고 때로는 머뭇거리는 탈출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eigh Gibson와 Shelly Matthews는 그의 저서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에서 이런 구약의 폭력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제공한다. 이런 연구들은 많은 부분에서 신약을 무시하거나 혹은 신약을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연구들은 신약이 구약의 폭력에 대한 해독제라고 하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폭력을 심판하신다(시16:4).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의 폭력을 금하신다(딤후1:7). 감독의 자격은 구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치리자들의 폭력을 경고하신다(골4:5-9).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 명하신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시10:17).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우신다(사41:13).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아신다(눅12:6-7).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신다(사61:1-3).

성경은 전쟁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상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지만 신약의 전쟁은 최종적이며 절정적인 십자가의 희생제사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최종 파루시아 때까지 천국확장을 위한 영적전쟁이다. 그것은 성도의 예배적 삶으로 수행된다.

우리의 세상은 폭력으로 금이나 고 상처를 많이 입어 만신창이가



몰지각한 세계적 폭력의 시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치에 의해 부헨발트 집단수용소에 갇혀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은 "학살은 극악의 폭력이다"이란 증언을 남겼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오는가? 크리스천포스트의 Jane Hunt는 폭력적인 행동의 패턴을 연구했다. 그녀는 폭력은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원인으로 온다고 주장한다. 사실 전문가들은 폭력의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상황적인 요소를 꼽고 있다.

1) 폭력에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다.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반응을 하게 만든다. 두뇌의 손상이나 화학적 약물의 의존성 등은 두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변경시킨다. 자신을 조정하는 역제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폭력적이 될 수 있다.

2) 폭력에는 사회적 요소도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어릴 때나 혹은 오랜 세월 동안 폭력에 시달리면 폭력이 생활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폭력이 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지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폭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현대의 미

공격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생각한 다. 케냐의 알카이다 난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테러를 통해서 확장시켜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4) 폭력에는 상황적인 요소가 있다. 폭력의 의도가 있어도 강력한 폭력의 도구를 쉽게 구하지 못하면 폭력의 강도는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무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날 수 있다. 무기의 화력 정도에 따라서 폭력의 희생자의 숫자나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워싱턴은 개인의 공격이었지만 케냐에서는 무장된 테러분자들의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전 세계적인 조직은 911과 같은 참사를 일으켰다. 때로는 조그만 불꽃이 무섭고도 거센 폭발을 가져오기도 한다.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이런 폭력들, 개인적이든지, 그들이든지간에 폭력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폭력적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사랑의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폭력을 어떻게 조화하는가 질문한다. Ra'anan S. Boustan은 그의 저서 Violence, Scripture, and Textual Practice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에서 히브리 성경과 신약성경의 페이지들을 통

라도 성경에 폭력이 많은 것은 인간사에 폭력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에 폭력 이야기가 많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타락이후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남긴다. 기록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이다. 근대사만 해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그 후에도 규모는 작지만 수많은 세계전쟁들이 있었다. 마지막 아파겟돈과 같은 종말론적인 전쟁의 가능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전쟁의 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 규모의 폭력도 그렇지만 작은 스키킬이라고 해도 폭력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한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폭력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폭력은 주도되어진다. 세상은 보복의 적절성을 고려하려는 인도적 요구마저 무시되고, 무한한 보복의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던 라멕의 논리(창4:23-24)가 지배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력을 어떻게 보시는데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신다(시11:5). 여호와와는 악인과 강

도였다. 우리는 대담과 함께 소망을 추구한다. 미국에서도, 케냐에서도, 그리고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슬퍼하고 애도한다.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 파괴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한 탁월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이다.

예수님의 임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향한 위로를 주신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향한 용서를 제공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지혜, 위대함, 평화는 폭력적 행동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고 치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은 깊은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종류의 폭력을 잠재우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동안 폭력과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강도도 더해갈 것이다. 하지만 이 절정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마침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폭력을 잠재우고 폭력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라.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목사님, 전화로 상담 요청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나성에서

A: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조금도 표현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란 것은 성경에 여러 번 그 표현이 나오니까. 먼저는 이 표현이 행10:33에 예수님께 표현된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의 총만함을 기름부으심(Anointing)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전도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착한 일 즉 전도 및 설교사역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원래 기름을 붓는 것은 출애굽기29장 4-7절까지를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 위임식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온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온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은 주의 종들이 일군의 자격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상징하는 성령님의 기름부으심

기름부음은 성령총만으로, 사역에 절대 필요

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기름을 붓고 발랐지만 대제사장은 직책이 더 중요하고 중함으로 더 많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직책이 중요할수록 더욱 성령의 기름부음 즉 성령총만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시편 133편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양의 향기로운 기름부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총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눅4: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역이 예수님처럼 말씀사역에 권능이 임하고 목회사역의 모든 면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나 일군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일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무기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일주일에 한번 가스를 넣어주어야 하고 3000마일마다 한 번씩 오일체인지를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나 일군들도 늘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엡5:18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오직 성령의 총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첫째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성령총만함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2)복수형입니다. 성령총만은 특별한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평신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3)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총만하게 되어 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높은 인격이기에 그 분이 감동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4)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을 말합니다. 과거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한번으로 만족 말고 계속 성령총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가스를 계속 넣어주어야함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와 같은 차도 가스 즉 기름부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름은 움직이는 동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을 줍니다.

<초교파>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2기 세미나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저 하는모임
- 영적힘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구제 활동
- 4차원 영성 상조회 가입

일 시: 2013년 11월 23일(토) 오전 9시~12시30분
장 소: 플러튼 하워드잔슨호텔 컨벤션센터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참가비: 30불(점심식사포함)
신청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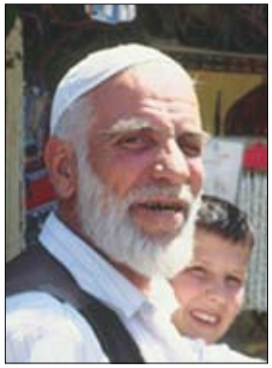
[문의]

회장 석중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사무국장 박정기 목사 213-327-8095
아프리카지역회장 전제이슨 선교사 714-904-3450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란의 길라키(GILAKI)



에 거주한다. 길라키 처음에는 길라안 지방(Gilan province)에 위치

했다. 길라키 민족이 220만이 넘었음에도 그들의 고전문화언어(길라키 또는 길라니 Gilani)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교육을 받은 길라키 인들은 이란의 국가공용어인 파르시(Farsi)를 사용한다. 1977년 길라안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라시트에 대학이 세워졌다. 길라안 지방(Gilan province)은 엘브즈산(Elburz Mountains)과 카스피해(Caspian Sea) 사이에 위치한 평지이다. 카스피해(Caspian Sea)의 바람에 의한 습기는 산에 막혀 습하고 따뜻한 기후로 울창한 숲

이 있다. 여러 해 엘브즈산(Elburz Mountains)은 길라안 지방(Gilan province) 거주민을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침입자들은 멀리서 지배하다가 1921년 이란과 평화조약으로 반환됐다.

삶의 모습 길라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쌀, 차, 담배를 재배하며 누에도 기른다. 1970년대 주요농업운동은 오일 붐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규모 투자유입에 의해 장려돼 대규모 쌀 산업이 소개됐다. 라시트의 도시는 농업재배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의 견직물, 비누, 유리를 생산하고 상업적으로 분배, 제조하는 요충지가 됐다. Quality 도로는 이들과 다른 제품들을 분배하면서 라시트와 이란의 다른 지방을 연결한다.

길라안 지방의 건축물은 독특하다. 숲으로 우거져 목재건축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적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베란다가 보통 목조건물의 측면에 세워져있다. 거주민은 대부분 이란과 그들 자신의 세력(이해관계)을 동일시한다. 어쨌든, 그들은 종종 저항과 개혁 운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세계대전후 길라키는 그들 자치구역을 위해 국가의 개혁과 독립을 요구했다.

신앙 역사는 AD50년쯤에 사도 바돌로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록 기독교가 강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대단히 약하다. 오늘날 길라키는 실제적으로 100% 무슬림이다. 그들은 이트나 아사리(Ithna-Asharis)이라고 알

려진 이슬람 계파에 속한다. 이슬람은 예언자 모하멧의 가르침을 기초로 코란, 이슬람의 경전은 가브리엘 천사가 모하멧에게 준 것으로 전해진다. 무슬림으로서 길라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언자, 선생,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그들의 행동에 따라 평가받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들의 선행과 코란의 지식에 의해 심판을 것이라고 믿는다.

길라키 무슬림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본 가르침 또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pillars)을 고집한다. 이것들은 알라가 유일신이라는 고백과 모하멧이 예언자라는 것, 매일 다섯 번 기도하는 것, 많은 구체적인 금을 하는 것, 메카를 순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길라키의 문화언어는 구전이다. 1940년대에 길라키 성경을 번역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는 포기됐다. 이 고대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크리스천 언어학자들은 라시트에 있는 대학에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일하는 것에 문이 열려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단 하나의 선교단체가 이란의 220만 길라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불행히도 예수영하나 크리스천방송 모두 길라키 언어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길라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할 수 없다. 기도만이 길라키 사람들이 복음에 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와이주상원,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미국 하와이주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동참했다. 31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주 상원은 이날 동성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는 법률을 찬성 20명, 반대 4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하와이주 상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회기를 마련해 이를 동안 찬반 토론을 한 뒤 이날 표결에 부쳤다. 하원 의결이 남아 있지만 하와이주 하원 51석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를 단호로 삼고 있다시피 한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하다.

하원 통과에 이어 요식 행위나 다름없는 날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15번째 동성 간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주가 된다. 하원은 이날부터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하와이주는 다만 목사가 동성 간 결혼주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는 동성 간 결혼식 장소 제공을 거절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종교계와 마찰을 최소화했다. 20여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다 2010년 주지사에 당선된 애버크롬비는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에 앞장서왔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 등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작 6개주와 워싱턴DC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14개에 이른다.

가벼워지는 미 현금함... 4년째 감소추세

미국 교회의 현금액이 4년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릴리전뉴스는 기독교 설문조사기관 '빈무덤(Empty Tomb)'이 개신교단 소속 10만개 교회의 현금액을 분석한 결과, 교인들의 수입 중 현금



비율이 2010년 2.4%에서 2011년 2.3%로 줄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빈무덤은 "수입 중 현금 비율은 2008년부터 4년째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금이 수년째 줄어드는 일은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 중 대외적으로 쓰이는 선교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빈무덤은 우려했다. 빈무덤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회들의 선교비 지출은 2010년에 비해 2011년 8700만 달러가량 감소했다. 빈무덤은 "교인들은 2011년 소득의 0.34%를 선교비 명목으로 냈다"며 이는 1968년 이래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매년 가벼워지는 현금함, 무엇 때문일까. 기독교계 크리스챤티티데이 매트 브라운 논설실장은 "경기 침체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이전만큼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매주 교회에 가는 대신 인터넷 방송을 듣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금에 대한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모금 사역 지원단체 덴함컴퍼니의 릭 덴함 회장은 "교회나 교인들은 더 이상 현금을 '영원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인들은 현금 접시에 얼마간의 돈을 올려놓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빈무덤의 실비아 론즈빌 부대표는 "만약 1억명의 크리스챤이 50달러를 더 현금한다면 전세계 어린이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은 현금에 담긴 잠재적 능력을 이해하고 현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집트 판사,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재판 기피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 무슬림형제단 지도부를 재판할 예정이었던 이집트 판사 3명 전원이 해당 재판을 기피했다고 일간 알아하람이 29일 보도했다. 재판장 무함마드 파흐미 알카르투리는 이날 무함마드 바디



에 무슬림형제단 의장에 관한 첫 공판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담당 판사 3명이 재판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는 무슬림형제단 실세로 꼽히는 카이로트 샤테르 부의장과 라사드 바유미 부의장 등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35명에 대한 재판도 맡지 않기로 했다. 판사들이 무슬림형제단 관련 재판을 기피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내달 4일 개시될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재판을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다. 피고인들은 보안이 이유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시리아 기독교공동체, 아직 살아있다

시리아 고위 성직자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현지 크리스챤 가운데 1/3이 시리아를 떠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펍박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밝혔



시리아정교회 대주교 그레고리 3세 라함(Gregorios III Laham)은 약 175만명의 시리아 크리스챤 인구 중에서 45만명 이상이 떠났다고 BBC 방송에 전했다. 그러나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아직 살아남아 있다고 확고히 전했다.

여전히 시리아에 남아있는 크리스챤들의 정확한 수는, 시리아를 떠난 사람들의 수만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국제오픈도어 대변인은 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됐을 때, 크리스챤의 인구가 몇 명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다. 시리아 총 인구의 약 8% 정도가 크리스챤이라는 추측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챤의 비율이 8%보다 낮은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악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지난 17일(현지 시각) 런던에서 발표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챤들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많은 나라를 떠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최악의 문제는 북한과 에리트리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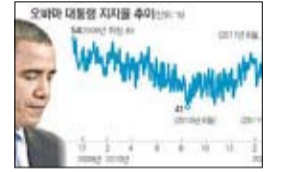
보고서를 기록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존 폰티팩스

(John Pontifex) 박사는 "기독교 박해가 발생하는 2/3 이상의 나라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가 잘 생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러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람의 봄' '크리스챤의 겨울'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변동과 함께 중동에 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바마 지지율 42%...역대 최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파문, 연방정부 섀다운(부본 업무정지) 등의 여파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42%로 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사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NBC 방송과 WSJ의 여론조사는 지난 25-28일 사이 미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달 초의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 두 언론사는 밝혔다.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한 이유를 단일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NSA의 도청 파문,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 연방정부 섀다운 및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논란 등 지난 9월 이후 드러난 국정운영 난맥상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두 언론사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호의적인 응답이 41%로, 부정적인 응답 45%보다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피터 D. 하트는 "개인적이건, 정치적이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거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두 언론사는 밝혔다. 즉 예산안과 오바마 케어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각을 세운 공화당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2%로 부정적인 응답(53%)보다 훨씬 낮았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fax, and payment details.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뉴욕 베데스다 교회 차기 담임목사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빙을 합니다.

- 1.기 본 가) Church of God (www.churchofgod.org) 소속 교역자 이거나 가입에 문제가 없는분 나) 한어,영어 회중의 공동 담임목사의 역할을 하실분 다) 미주내에서 ats 인준 신학교에서 M.Div. 이상 학위 취득하신분 라) 50세 미만 마) 영주권 이상 신분 문제가 확실한분 바) 가정 교회 사역원(houston,tx)의 추천을 받을수 있는분
2.제출서류 가) 여권 ,신분 증명 copy 나) 이력서및 신앙 고백서 다)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라) 목사 안수증 마) 가족 사진및 가족 소개서 바) 가정 교회 사역원 (Houston,TX) 추천서 사) 한,영 설교 각각 한편의 음원 file 아) 추천서 1통이상 자) 목회 소견서
3.연 락 본 교회 운영위원회 nybcoffice@gmail.com 전화 문의나 서류 반환은 없습니다. 마감은 2013년 12월 10일 입니다. 모든 서류는 e mail로만 발송니다.
4.참 고 대우나 교회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e mail로 연락 주세요

뉴욕 베데스다 교회 운영위원회 nybcoffice@gmail.com 85-20 57th ave, elmhurst, NY,11373 www.amenjesus.org

뉴욕 베데스다 교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6)

정 성 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위대한 목회자 카이퍼



카이퍼는 1863년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다. 카이퍼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목사는 그의 나이 약관 26세 때였다. 라이덴 대학교로부터 25세에 신학박사(Dr. Theol) 학위를 받은 1년 후, 결혼과 함께 베이스트(Beesd)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사로 부임했다. 말 그대로 햇병아리 목사였다. 아버지로 부터는 정통신앙을 배웠지만 그가 다녔던 학교인 라이덴 대학은 이른바 자유주의의 아테네였다. 물론 그가 23세에 종교개혁자 라스코를 연구하고 또 박사학위논문도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 연구'란 제목으로 썼지만 그것은 다만 그저 학문적 연구에 불과했을 뿐, 아직도 뜨거운 가슴으로 개혁주의자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카이퍼의 심중에는 두 가지 표리부동한 사고가 있었다. 가슴은 아버지 목사의 정통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머리는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했다. 목회 초년병으로 가슴에 열정은 있었으나 신학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카이퍼가 처음 부임한 교회는 시골교회라고는 하나 한국식 개념의 시골 개척교회라 아니었다.

베이스트(Beest)교회의 첫 목회

약관 26세의 나이에 카이퍼는 목사가 되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 일찍 소명을 받아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에 많은 설교를 듣고, 고리문답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라이덴 대학교에

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젊은 초년병의 카이퍼 목사는 매우 솔직하게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비록 목회 초년병이기는 해도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나무랄 때 없는 설교자였다.

우선 우리는 카이퍼의 첫 목회지 베이스트교회의 행편을 알아보는

하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가졌다. 그러나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곧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열성적인 성도들은 카이퍼 목사가 정통도 아닐뿐더러, 자유주의 경향을 가졌음으로 설교자 카이퍼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도 철저히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보수하려는 사람들을 가르쳐 "몇몇 불평분자들"(Few malcontent)이라고 했다.

사실 젊은 카이퍼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했다. 카이퍼는 목회의 경험도 없고, 그가 가진 신학적인 배경은 현대주의 곧 자유주의 신학이었다.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화란의 국가교회인 갱신교회(Hervormed Kerk) 성도로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상태로 그러저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써 카이퍼 목사는 이들을 계속 심방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카이퍼의 심방은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거나 말하기 보다는 인내를 갖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었다. 아마 이것은 카이퍼의 목회적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카이퍼는 철저한 개혁주의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해나가는 중에 점차 설교의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목회자 카이퍼가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작은 그룹의 성도들이 카이퍼 목사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성도인 발투스(Pietronella Baltus)였다. 발투스는 순전하고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졌다. 개혁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졌던 발투스가 젊은 목사 카이퍼에 대한 진심 어린

로 돌아오도록 겁 없이 충고한 발투스를 비롯한 개혁주의의 성도들도 귀하지만 그들의 충고를 겸허히 받고 전통적이고, 역사적 칼빈주의자로 돌아선 카이퍼도 위대했다.

카이퍼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된다. 거기서 카이퍼는 또 다시 칼빈을 만나게 된다. 즉 그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칼빈의 저서들을 탐독하고, 폴란드의 종교개혁자 라스코를 읽었으나, 진정으로 칼빈을 가슴으로 만난 곳은 바로 이 시골교회인 베이스트였다. 왜냐하면 이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 칼빈이 쓴 라틴어 책을 읽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들의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았다. 그러나 칼빈이 죽은 이후 300여년이 지났지만 칼빈의 신학과 신앙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 있었다.

당시에 유럽의 신학교와 대도시 교회들은 한결같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현대신학으로 세속화되었는데, 이 성도들에게는 칼빈신학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셈이다. 카이퍼와 칼빈의 영적 자녀들과의 만남으로 카이퍼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카이퍼는 칼빈에게 왔다 (in time Kuyper Came to Calvin). 그때부터 카이퍼는 화란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등 칼빈의 책들을 다지는 대로 탐독했다. 그리하여 그는 19세기 칼빈주의 부흥가로서 다시 태어났고 뜨거운 가슴으로 준비되어갔다. 어쩌면 젊은 목사 카이퍼가 시골교회 베이스트에서 4년 간 목회한 것은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변화의 기간이었고 영적으로 성숙 되어가는 시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메일:skc0727@yahoo.com

첫 목회지 베이스트교회에서 칼빈 신앙 철저히 만나 순교자적 신앙가진 여성도 발투스에게 큰 영향 받아

들어와 문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물든 이른바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카이퍼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기는 해도 당대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다.

더구나 당대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인 스펀텐 박사(Prof. Dr. J.H. Scholten) 아래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그 자존심 또한 대단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베이스트교회에 첫 목회지에 부임하는 날, 1863년 8월9일 부임예배 본문은 요일 1:7이었으며 본문을 읽고 첫 설교를 했다. 이 설교의 내용 중 절반은 복음적이고, 절반은 현대주의 사상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대로 베이스트교회가 그냥 시골교회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베이스트교회는 칼빈의 종교개혁을 전후해서 세워진 교회이므로 이미 300년도 훨씬 넘는 교회였다. 이 말은 이 교회가 전형적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라는 것이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너무 오래된 나머지 교회 분위기가 의식적이며, 열정이 부족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성도들은 가장 정통신앙을 갖고 그 옛날 칼빈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돌트신경(Dordt Canon)의 교리를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카이퍼의 설교를 그런 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

력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지나치다 하리만큼 외골수의 교인들이 비타협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힘 있게 지키려는 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대로 확신 있게 살아가려는 개혁주의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주의 냄새가 풀풀 나는 풋내기 젊은 목사를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목회자인 카이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충고하고 경고는 카이퍼를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참으로 서먹서먹하던 관계였으나 발투스의 개혁신학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카이퍼 목사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점차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거목이 태어나고 있었다.

발투스의 권면과 충고가 카이퍼 목사의 신학적 신념들과 세계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교회의 발투스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권고로 반 정통주의, 반 자유주의적 견해에 애매하게 안주하던 카이퍼는 건전한 정통주의와 본질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자본 교회 목사를 철저히하고 역사적 칼빈주의 사상으

칼럼 음악목회 (17)

'찬양대'와 '성가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예배를 위해 '찬양대' 혹은 '성가대'를 두고 공식적인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찬양대'라는 칭호로 기독교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칭호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올바른 칭호인지를 정의하기 원합니다. 이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들이 문교부에 음악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 '교회음악과'로 신청하면 허락이 되고 '종교음악과'로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

교, 원불교 등이 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모든 대학교 음악대학 안에 천주교음악과, 불교음악과, 원불교음악과 등 각 종교음악과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하여 종교음악과로 허가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음악이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예식에 종속된 음악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

한 모든 종교적인 음악을 총체적으로 일컬어 종교음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토속적인 무속종교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종교음악을 '성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으로 통탄할 일이 한국의 최초의 종교음악과가 설립되었던 연세대학교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찬양 '시편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를 작곡했던 나운영 교수가 '찬양'을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면 '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 즉 '거룩'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적어도 제사의식에서만큼은 최선의 '거룩'을 표

현하고자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노래가 성가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가대'라고 호칭합니다.

이제 다시 정의하기 원합니다. 개신교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해 세워진 찬양하는 무리들 즉 '찬양대'도 '성가대'라는 모든 종교음악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있다면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이지 종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해 세워진 찬양하는 무리들을 더 이상은 '성가대'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의 도입부와 끝부분에 회중찬송을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팀은 '찬양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결코 잘못된 호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찬양대는 '성가대'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경배찬양팀을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따라 두 개의 팀을 하나로 묶어 '찬양대'로 호칭하고 두 가지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이 약화되면 예배의 효율성과 집중성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 2013년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3. 창조론의 기초(14) - 홍수 전설들

전세계 거의 모든 문명들은 홍수전설을 가지고 있다. 현재 270여 개의 홍수전설들이 수집되었는데 각 전설들의 세세한 부분이 다 같지는 않아도 그 핵심은 남아 있다. 예전에 “황금시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신앙 좋은 가족이 있었는데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큰 배를 지어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 사람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세상은 악해졌고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선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이름이 “누우”란 사람이었다. 그는 커다란 카누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어 동물들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와 온 지구를 덮었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는데 누우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

잉카인들의 전설
고대 잉카인들에게 전설에는

수메르 점토판의 홍수 기록
우트나피쉬뎀은 대홍수를 보 내려는 신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족과, 소유, 길들여진 동물과 야생동물들, 그리고 몇 명의 기능인(craft man)들의 생명을 구할 큰 배를 건조하였다. 그 홍수는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그 방주는 6일 동안 살아남았다. 그 배는 어느 산 위에 내려앉았고 우트나피쉬뎀은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는지를 알아보려고 새들을 날려보냈다. 이 밖에도 이 점토판에는 성경의 노아홍수기록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성경은 이 수메르 점토판의 전설을 베껴온 것인가? 이 점토판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 기록보다 앞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이 수메르의 홍수설화를 변형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 상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의 경우는 다른 학문분야와 달리 우선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기록이 사실인지 방주의 모양을 보자. 이 홍수전설에는 배의 자세한 제도를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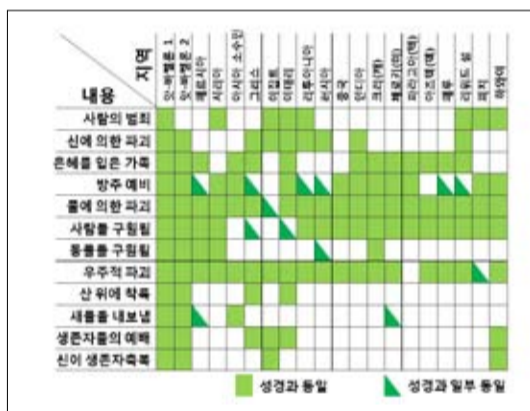
는 것일까 아니면 한 개의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른 민족들이 계속 베껴가면서 내용이 변질된 것일까? 같은 한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경우에는 언어와 피부색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 다른 부족의 전설을 베껴간 것이라면 왜 수백 개의 부족들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역시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어와 지역이 완전히 다른 수백 부족들이 비슷한 홍수전설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 답이 보인다. 증인도 없고 기록도 없을 경우, 과거 지나간 역사를 알아내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성경은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3:11-12).

말씀이신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다. 이 역사에 의하면 노아의 한 가족만

전 세계 270여 홍수 전설 수집... 핵심은 같아

유전정보 분석 ‘인류는 한 조상’ 노아 이후 5천년



노아홍수의 전설들
세계에 존재하는 홍수 전설들은 성경의 노아홍수가 사실이었으며 전 인류는 같은 한 조상의 후손들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의 창조 신(god)인 비라코차(Viracocha)가 지구와 하늘 그리고 여러 거인들을 창조하였다고 한다. 무슨 일인지 그 거인들은 그 창조 신 비라코차에게 분노했고 그 결과 그 신은 대홍수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 와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물에 뜨는 상자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비라코차는 진흙으로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다시 이 지구에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였다.

없고 단지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후에 이 판에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 홍수신화에서 이 배의 형태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20규빗인 정육면체다. 약한 파도만 맞아도 공처럼 아주 쉽게 굴러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방주는 길이(300규빗)와 폭(50규빗) 그리로 높이(30규빗)의 비율이 전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성경이 수메르 점토판이나 다른 점토판보다 늦게 기록되었지만 성경이 사실기록임을 알 수 있다.

세상 수백 민족들이 이런 홍수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사실로부터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민족들은 원래 모두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

살아남고 전 인류가 몰살당한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고, 한 언어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다른 언어가 주어져 뿔뿔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류는 한 조상에게서 왔으며(Human genome project, 2003), 인류의 가계는 169세대 5000년쯤임을 밝혔다(Science, 2004년 9월30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었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므로 외견상 인류역사가 5000년처럼 보인 것이다). 성경의 역사 위에 이런 증거들을 올려놓고 이 세상 수백 민족들에 흩어져 있는 전설들을 덧붙이면 모든 수수께끼가 스스로 풀리게 된다. 아, 그랬구나!

성경은 홍수전설의 수수께끼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들이 성경에 들어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묵상.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든 게 손안에 풍성히 쥐어져 있을 때는 귀히 여겨지지를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는 상상을 불허하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에덴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의 모습에서 극도로 자신에게 충실하여 동생 조차 죽이고 에덴의 더 동쪽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담은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찌지 섭섭한 원망과 올라오는 죄의식으로 변명 등으로 꼬여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첫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 착한 아들 아벨을 죽인 끔찍한 사선 속에서 겨우 자신들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아벨 대신에 아들 셋을 주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심경을 만나며, 아버지의 심장을 만나며, 믿음의 교육의 부재로 실패한 가인을 떠올리며 셋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배웠다하더라도 철이 드는 것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인 것같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즈음에야 셋을 포함한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창4:26절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라진 아담의 모습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공연히 고백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행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이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하나 둘 떠나가 버릴 때 비로소 “아빠사 그대 내게 복이었구나...” 땅을 치는 우리네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모든 인간사에 되풀이 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을 넘어 그 분의 속내에 하나하나 감동되어 만나며 깊이 그 분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겠지요. Never too late!

다 잃어 버린듯해도 인생은 언제나 오늘이 시작입니다. 아무리 뒤 늦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떠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진솔히 부르고 예배하는 나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에 익숙한 못한 모습을 내어던지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게 허다한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고 있는 아버지의 섬세한 배려에 그저 따뜻한 품에 나를 던지고 더 많이 감사드리지 못함을 회개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고맙습니다. 넘치게 받은 이 사랑 만나는 이마다의 가슴에와 닿도록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격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4.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6(Fri) - 19(Mon), 2014
- Place: Toronto, Canada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Luke 16:19-26
- N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목회서신

아버지와 아들의 꿈

중학교 때 날아오는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했지만 인류 복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세

살 때부터 안과 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치료하겠다는 꿈을 가졌고, 둘째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양 최초의 미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을 설립했고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로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의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둘째아들은 미국 시카고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며 미 일리노이대 교수인 강영우 박사와 두 아들 진석, 진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 한국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한국을 세계 속에 빛낸 인물로 선정된 강 박사는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자녀 교육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70가지의 이야기 책을 점자로 만들어 자녀들이 서가에서 어떤 책을 뽑아 와서 읽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두 아들에게 제일 먼저 수영과 스케이트를 가르쳐 체력을 길러주었고 강 박사는 자녀들을 목욕시켜 주거나 자녀들과 같이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시력을 이용해 도서관을 찾아가던 일, 2인용 자전거를 함께 타던 일들은 잊지 못할 추억거리라고 합니다.

두 아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서슴없이 아버지를 꼽습니다.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아버

지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실명 때문에 자녀들이 잃은 것은 없으며, 오히려 여동생 속에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자녀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만약 내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아들과 야구를 하고 아내와 테니스를 치고 온가족을 태운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가족 여행을 다녔겠지만, 지금처럼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훨씬 더 밝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필라교협 신임회장장에 김선훈 목사 제34회 정기총회, 2014복음화대회 6월 개최 확정

대 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가 지난 4일 오후 7시 새한장로교회(담임 고백원 목사)에서 제34회 정기 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김선훈 목사를 선출했다.

1부 경건예배는 박동배 목사 사회로 서장석 장로(부회장) 기도, 안문균 목사(서기) 성경봉독(막1:40-45), 황준석 목사(증경회장) “주님이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대우 목사(직전회장)의 축도 후 회기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박동배 목사 사회로 모든 회무 처리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후 신임회원으로 뉴비전교회(담임 최왕기)가 가입했으며 이단 대책 보고는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임원 선출은 증경 회장이 교단 안배 원칙에 따라 정, 부회장을 추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매년 9월에 개최해오던 필라 복음화 대회를 내년에는 6월에 열기로 결정했고, 기타 안건과 실행위원, 각 분과 위원장은 임원전에 임명,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선출된 신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선훈 목사(세전교회, 미주교신) △제1부회장 최해근 목사(몽고대리교회, KACP) △제2부회장 박원배 장로(서머나교회, 미주합동) △총무 박도성 사관(구세군) △서기 손석배 목사(성광교회, 미국장로교) △부서기 주원재 목사(목양장로교회), 기타 회계, 협동총무, 감사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건강한 가정이루기...소통과 위로 LA사랑의 부부합창단 제3회 콘서트



제3회 LA사랑의부부합창단 콘서트다 하나교회에서 열렸다

LA사랑의부부합창단(단장 서승수, 지휘 김효인 교수) 제3회 콘서트를 ‘당신은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오후 7시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참 좋은 주님’, ‘시편 23편’, ‘Without Love’, ‘저 천국은 나의 집’ 등 성가곡과 ‘보리밭’,

‘사랑으로’ 등 가곡과 대중가요 등을 불렀다. ‘사랑의 주님이’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부부합창단에게 뜨거운 부응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김밥’을 부를 때는 본 합창단 자녀들로 구성된 밴드가 등장했다.

이날 소프라노 박혜숙(베데스다대학교 교수)과 LA 색소폰 앙상블(디렉터 샘비)이 찬조 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빛냈다. LA사랑의부부합창단은 지난

2008년 5월 뜻을 같이하는 다섯 가정이 모여 탄생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위기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전해 무너져 가는 가정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모두 하나가 돼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LA사랑의 부부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에서 모여 연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단장 서승수(714-501-8116), 지휘 김효인(310-619-1310), 총무 김용선(213-327-8028)에게 연락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 주제 미주장신대 세미나, 강사에 최상준, 최우성, 이학준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컨퍼런스에서 최상준 박사가 발제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주최한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 공개 컨퍼런스가 지난 29일 오후 5시 본교 채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개컨퍼런스에서는 강우중 교수(본교 기독교윤리학)의 사회로 최상준 박사(본교 미국교회사), 최우성 박사(장조과학신교회), 이학준 박사(폴리신학대학 기독교윤리학) 발제자로 나섰다.

강우중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퓨리서치 글로벌 등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엔 60%가 동성애는 사회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교회가 말하는 동성애와 사회가 말하는 동성애 간격이 넓어지고 있다. 기독교 흐름이 세상 흐름에 희석되고 있다. 사회문화 정치적 흐름에 교회는 어떤 흐름을 만들고 또 흘러보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 대안이 논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세미나를 시작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로 나선 최상준 박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동성애 이슈는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이다.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 한인들의 일반적 반응”이라며 “영적 지원 감도를 인지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기다. 이때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시공간에 함께 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가장 민감하게 와 닿는 것은 동성애가 경제적 베네핏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이지만 동성애 이슈는 계급투쟁으로 갈등화 되고 있다”며, “동성애 이슈는 사랑의 성취, 섹스의 자유권, 신체적 권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호소력과 문화적 권력쟁투다. 이미 18개 주가 동성결혼 허용을 결의했다. 교회와 가정은 동성애 문제로 인해 이중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낮은 자와 억눌린 자로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것과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라 말했다.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피조물들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공동체로 나아갈수록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된다”고 말했다.

‘창조적, 성서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최우성 박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번져나

갔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동성애를 인권문제와 결부하지만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인권을 사실상 동물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해결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대로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오류가 없고 우주역사가 담겨있는 단 하나의 진실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이학준 박사는 “미국에서 지난 10년 사이 여론은 젊은이 가운데 동성결혼 찬성하자는 입장이 70%를 웃돈다.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는 성이다. 성에 관한 이해가 바뀌었기에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바뀐 것이다. 미국의 88%가 혼전 성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고 북미주의 교회 교인의 80%도 동일한 경향이 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자녀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학교와의 간격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 자녀들과 30분 이상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가? 성경적 지식과 더불어 사회 속에 적응에 나아가 할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인 대화와 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가르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토라 이스라엘 문화 성경배경 세미나 강사 선우권 목사 “성경의 율법 개념 다르다”



하나교회에서 열린 토라-이스라엘 문화-성경배경 세미나에서 선우권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성경 구절 속의 깊은 의미를 히브리 문화배경 바탕으로 풀어내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토라와 성경배경(유대인 문화) 세미나가 LA하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선우권 목사(충남 세종누리교회 담임)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 중에는 교회들이 성경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성도들은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다. 목회

자들 역시 성경을 연구해 새로운 설교를 전할 때 교인들은 불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선우 목사는 “새로운 것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해서 풀어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문화와 히브리 언어 등을 접목시켜 세미나를 인도하니 반응이 좋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중 히브리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과 한국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차이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중에서 하나는 율법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토라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고, 지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율법적인 자를 예수를 잘못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우권 목사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히브리 민족은 모든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두는 것 △하나님 믿는 민족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전통적 특징 이해 △수치와 명예를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적 히브리 문장구조로 분석했다.

한편 선우권 목사는 토라와 성경배경 연구는 한국 총신대 대학원 과정으로 최근에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 토라와 성경배경(유대인 문화) 세미나를 매년 한 차례 미주 지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국인심리학회 2013연례컨퍼런스



미주한국인심리학회 주최 2013 연례컨퍼런스에서 최명자 가정치료 전문가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한국인심리학회(대표 저스틴 최 박사)는 ‘교육과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2013 연례 컨퍼런스를 지난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돌로스션교회(담임 황의정 목사)에서 개최했다.

수지오 교육학 박사의 ‘Common Core Standards, the New Curriculum for K-12’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으로 시작한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다. 한국어 진행 세미나는 최명자 테라피스트가 ‘사

이좋은 부부와 자녀의 좋은 학교성적의 상관관계, 풀 하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교육’을 강의했으며 영어로 진행된 워크숍은 엘리스 최 선생이 ‘연극치료 워크숍’, 엘렌박 나카시마 선생이 ‘Parenting with Empathy Raising Children Who Thrive’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저스틴최 대표는 “세 번째 이번 컨퍼런스는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하다. 정신건강과 교육 등이 무겁게 인식될 수 있는데 컨퍼런스를 통해 편안하게 생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당 1시간 15분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현, 이만형, 김해천 목사로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2013 AYC 청소년 후원 감사의 밤”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산하 아시안청소년센터가 주최하는 “2013 AYC 청소년 후원 감사의 밤”이 오는 19일(화) 뉴욕주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게 열린다. 오후 7시 저녁식사 후 예배와 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718)321-1010, 2525

“주 손길” 출판감사에배 및 음악회

고요한 목사(뉴욕장대인교회)의 저서 “주 손길” 출판감사에배 및 음악회가 오는 10일(주) 오후 5시 뉴욕 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열린다. 예배 설교는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교회 담임), 음악회는 지인식 목사부부, 정은선 선생(가야금), 이진주 이진희(바이올린), 뉴욕장로성가단, 서병선 테너,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미동부성실OB남성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문의: (718)404-5548

고국소년소녀 가장 돕기 크리스마스 콘서트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고국소년소녀 가장 돕기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3일(주) 오후 6시 뉴욕 참사랑교회(담임 은혜근 목사)에서 열린다. 태명사랑 장학재단이 주최하고 우드윈 음악원이 주관한다. 지휘 제시유, 반주 이하나, 소프라노 전미송, 브라이언 김 등이 출연한다.

▲문의: (718)539-7929

KCBN 2013 후원감사에배

KCBN 미주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 2013 후원감사에배가 12월 2일(월) 오후 7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율한해 본 방송을 후원한 후원자들을 초청한다.

▲문의: (718)463-1700

한인노숙인 쉼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

뉴욕나눔의집 주최 씨즌 특별후원

노숙인쉼터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하고 씨즌(대표 문석진 목사)이 특별 후원하는 ‘한인노숙인 쉼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가 지난 3일 오후 6시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박성원 목사는 “나눔의집에서 생활했던 60이 넘는 한 노숙인이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이 생겼다. 기도하다가 후원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 분은 여기서부터 늘 꿈꾸던 한국의 아파트 경비원이 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한 노숙인의 사연을 소개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사역을 세워나가 한인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점차 더 밝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배영란 권사(전 나눔미션 대표) 사회로 문석진 목사(이사)의 환영 인사후 시작됐다.

문석진 목사는 “시간, 재능, 기도,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아가지길 바라고 기쁨을 나누는 푸근한 자선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공연은 뉴욕/뉴저지 유스 오케스트라와 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테너 에디 리가 맡았다.

내빈으로 뉴욕 시의원 후보인 폴 벨로네(Paul Vallone) 후보, 정도인 목사(뉴욕목사회 중경회장), 뉴욕 한인회 수석부회장 함승환 변호사, 이명석 전 퀸즈한인회 회장, 박진하 목사(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황경일 목사(교협중경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영진 목사(이사)의 기도 후 후원 약정의 시간을 가졌으며 소프라노 에리카문의 특송이 이어졌다.

지인식 목사(이사)가 인사 및 광고를, 박성원 목사가 김진환 대표(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창섭 목사의 만찬기도로 음악회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40회기 임실행위 명단 발표

분과위 38명, 특별위 30명 등 총 80명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제 40회기 임실행위 명단이 발표됐다. 임원 8명 외에 협동총무는 수석 2명과 12명 등 총 14명이며 분과위원은



주예수교회 음식문화축제에 한국전통 결혼식을 선보이고 있다

38명, 특별위원은 30명 등 총 80명과 감사 3명, 이사장 1명으로 구성됐다.

뉴욕교협은 지난 30일 발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승희 △부회장 이재덕, 이주익(장로) △총무 장경혜 △서기 송일권 △부서기 이철희 △회계 이수원(장로) △부회계 전희수 △협동총무: 김홍석, 박태성(수석), 조병광, 황영송, 정대영, 이성현, 박맹준, 양민석, 김영환, 김희복, 안승백, 이은수, 김연규, 최현준(이상 목사) △감사: 허윤준, 김영철, 이대연(장로) △이사장: 박영진(장로).

△분과위원회: 선교 이풍삼, 목회 이만호, 행사 김수태, 교육(성지순례) 김상태, 원주민선교 김기호, 역사자료 박이스라엘, 사모 전혜순(사모), 의료 지인식, 동원 합성은, 사회 박성원, 홍보 박태규, 음악 이다윗, 장애인 조원태, 체육 이창남, 여성 윤숙현, 청소년 김지욱(전도사), 국

지역사회 축제로 자리매김

주예수교회 제6회 한국음식문화축제 개최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최하는 한국음식문화축제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지난 19일 열린 축제에는 카운티 정부, 소방서, 경찰서, 방송국 등 공공기관 봉사자들과 지역주민 및 교인 약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고기, 잡채, 김밥, 김치, 녹두빈대떡, 해물파전, 떡볶이, 호떡 등 약 13가지의 한국 고유의 음식들이 선보였으며 특히 한국 전통혼례식을 연출해 한국의 미(美)와 예(禮)를 미국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 한 달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하면서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받은 올해 음식문화축제는 특별히 NBC12 저녁뉴스와 지역신문사인 Richmond Times Dispatch에 크게 보도됐다.

본 축제는 갈수록 다문화, 다인종 사회화 되는 리치몬드 지역에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고 한국의 세계적인 음식과 음악 등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의 총 기획을 맡은 박석민 장로는 “올해는 특별히

지역의 방송국과 신문사들의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수익금 전액이 교회의 국내외의 사회 선교사업에 사용돼 지역 주민들을 향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 된다”며 “참여한 분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축제에 참여한 Richmond Times Dispatch 사 진기자 캐빈 몰리 씨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음식문화축제를 취재했지만, 이번 한국 음식문화축제 같은 다양한 먹거리와 볼 것을 제공하는 곳이 별로 없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추천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인 이민교회로서 설립이후 13년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꾸준히 지역 사회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주예수교회는 지난 2011년에는 유니온 장로회신학교에서 수여하는 사회봉사상(Elinor Curry Award)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한인노숙인 쉼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 출연진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 박마이클, 실버 유한수, 유년 김성은, 상담 김금옥, 청년 유승례, 영어권목회 이재홍, 영점 최요셉, 시설관리 김종완, 전도 한석진, 행사협력한준희, 교육사업 유상열, 방송 최은종, 기획 김요셉, 행정지원 유용진, 친교 이영삼, 기도 김병욱, 다민족안관련 특별집회 오대명, 경조 과제혁, 구제 이상정(사관), 재해 장재용, 복지 임병남(이상 목사).

△특별위원회: 자문 방지각, 장학 김종덕, 지도 김해중, 선거관리 신현택, 협력 이병홍, 재산관리 이문구, 교협건물이전추진 김용길 신부, 법규 송병기, 결혼상담지도 김정국, 청소년지도 최예식, 중재 장석진, 해외 선교 김남수, 공로상포상 박희소, 인권 김영식, 부흥감사단 안창의, 지역 협력 활동의, 목회연구 허 걸, 목회자복지 환경일, 교단협력 김일기, 이단대책 최창섭, 미자립교회후원 양승호, 목회자교류 한재홍, 개척교회 지도 이승재, 대외관계 이희선 목사, 미디어 박용기 장로, 연합선교 이규섭, 신학윤리 이광희, 신년하례 황영진, 주소록출판 이재덕(이상 목사).

임명된 임실행위 위원들은 오는 14일 회장 취임예배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교협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새 이사장에 박영진 장로 “나눔과 섬김으로 행복을 드리는 이사회” 로

뉴욕교협 이사회 새 이사장에 박영진 장로(뉴욕성결교회)가 선출됐다. 이사회는 지난 28일 개최된 27회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박영진 장로를 선출했다. 박신임이사장은 2년전 이사회에 가입해 지난해에는 기획담당 부이사장을 맡아 봉사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한해 이사회 일을 하다 보니 이사회의 일이 의미 있는 일임을 알게 됐다”며 “뉴욕성결교회 표어처럼 ‘나눔과 섬김으로 행복을 드리는 이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회계보고에서 수입 78,216달러 지출 70,151달러, 잔액 8,065달러로 보고했다. 이주익 전 이사장은 예년과 같이 교협의 사업들을 지원했으며, 처음으로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열어 6천여달러의 수익금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정관수정에서는 8조 선출조항의 “임원은 본회에서 선출한

다”라는 내용을 △이사장은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기타 임원 및 감사는 이사장과 직전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하게 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10월 중에 한다. △회비는 이사장 1천 달러, 부이사장 5백 달러, 이사 3백 달러, 전임 이사장 1백 달러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신입회원이 13명 가입했으며 초대교회 교인이 다수를 이뤘다.

한편 교협총무 장경혜 목사가 참석해 2014년 교협주소록에 대해 공시했다. 주소록 출판은 교협부회장이 맡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교회광고 수주는 교협이 담당하고 엄소광 수주는 이사회가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사랑의빛선교회 윤대혁 담임목사 취임 “한 영혼에게 물 떠먹이는 목회자 되겠다”



사랑의빛선교회에서 열린 윤대혁 제3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에서 윤대혁 목사와 윤지나 사모가 인사하고 있다

사랑의빛선교회 제3대 윤대혁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3일 오후 4시30분 본 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윤대혁 목사는 “부족한 종을 세운 당회원들과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남가주사랑의교회 당회원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하나님께 앞도려 기도하는 목회자,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목회자,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만 선포하는 목회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물을 떠먹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담임목사로서의 각오를 피력했다.

또한 “지난 7개월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스런 목회자가 되겠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재문 원로목사(국제총회 증경 노회장)의 인도와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취임감사예

배는 신석화 장로의 기도, 성가대 찬양에 이어 국제총회 총회장인 안동주 목사(생수의강선교회)가 ‘브라가’(막6:34-4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담임목사 약력소개가 있었으며, 이서 목사(국제총회 노회장)가 담임목사와 교인 서약시간을 가진 후 김재문 목사가 취임패 증정을 했다.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의 권면과 구분철 목사(갈릴리온교회 담임)의 축사가 있는 후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분당할렐루야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오류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담임)의 축하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본 교회 시무장로들이 축가를 불렀으며 안동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윤대혁 목사는 1974년 4월 경기

도 구리시에서 출생했으며, 아버지고 윤승현 목사의 헌신적인 목회사역으로 인해 교회 사랑과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삶의 자세를 품게 됐다. 1999년 윤지나 사모와 결혼, 슬하에 8학년 아들

재원, 6학년 딸 예원을 두고 있다. 한국 총신대학교에서 학부(BA)와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했다. 11년 전 도미,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과정(Th.M) 중에 있다. (박준호 기자)

“건강한 신앙...강한 면역력 가져야” 김풍운 목사초청 새장로교회 2013가을부흥회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는 김풍운 목사(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초청, 2013 가을부흥회를 ‘건강한 신앙’(고후13:4)이라는 주제로 지난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했다.

첫날 ‘건강한 성도’(행10:1-8)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풍운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생각할 때 다섯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 면역력이 강한 것이다. 죄는 영적으로 병과 균에 해당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둘째, 건강한 사람은 안정적인 호흡을 한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는 고르게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건강한 자

는 식욕이 왕성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이다. 넷째 건강한 사람은 태도가 바르게 된 자이듯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세상을 행하여 가지셨던 태도를 따라가려고 한다. 다섯째 건강한 자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듯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를 도와준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 날 새벽집회는 ‘건강한 마음’(사10:3-5), 둘째 날 저녁집회는 ‘건강한 교회’(눅19:1-10), 셋째 날 새벽집회는 ‘건강한 직원’(삼상 2:30), 그리고 셋째 날 저녁집회는 ‘건강한 믿음’(막10:46-52)이라는 제목으로 김풍운 목사가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새장로교회에서 열린 2013 가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풍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후원의 밤 행사가 11월 18일(월) 오후 6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열린다. 개교 3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는 후원의 밤 행사는 감사예배와 식사, 후원의 밤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714)680-9556-7

제22회 LA승실 OB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LA승실 OB 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 교수) 제22회 정기연주회가 11월 9일(토)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521-0991

올림선교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올림선교합창단(단장 강천순) 제 7회 정기 연주회가 10일(주) 오후 6시30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호목사)에서 열린다. 1990년에 설립돼 음악으로 화합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올림선교합창단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선교사역을 돕고 있다. ▲문의: (213)254-7003

ANC 온누리교회 성교육 세미나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제1차 거룩함을 위한 성경공부를 ‘성적 유혹 승리 지혜서: 영성깊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믿음의 삶’이란 주제로 8일(금)부터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개최한다. 3주 과정으로 열리는 성경공부는 성교육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강승철 목사, 강해경 박사이며 교재비 20달러. ▲문의: (213)500-3473 성만경 장로

새찬양교회 이웃초청 사랑의 음악회

새찬양교회(담임 변윤선 목사)가 주최하는 ‘이웃초청 사랑의 음악회’가 10일(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이번 사랑의 음악회는 배재코랄과 KAMA 어린이합창단, 소프라노 김은옥, 테너 신하민 등이 출연한다. ▲문의: (562)972-3865



함께하는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함께하는교회 교회이전 감사예배 김호진 이승구 집사 임직식도 열려

함께하는교회(담임 조진석 목사)가 교회이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지난 27일에 가졌다. 오후 2시30분 조진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김호진, 이승구 집사 임직식은 양철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노

진걸 목사(풀러튼 장로교회 담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전3: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록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어떤 공

적과 공력의 기준은 기록이다. 기록은 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로 이야기돼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다. 그것으로 되어져야 우리의 사역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임직서약이 있었으며, 임직패 증정, 강귀봉 목사(분교회 협동)의 권면 및 축사, 이승구 집사의 담사가 있는 후, 조진석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교회이전 감사예배는 이해극 장로가 기도, 찬양대의 찬양, 조진석 목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민13:30-3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함께하는 교회의 새 예배당 주소는 3300 W, Adams Blvd, LA, CA 90018 전화는 (323)766-0321, (818)957-7139. (박준호 기자)

남가주 60여 한인신학교 중 유일...개교25년만 래거 WMU ATS 정회원 축하 및 후원만찬



월드미션대학교는 ATS 정회원 축하 및 후원만찬 행사를 동양선교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 ATS 정회원 축하 및 개교 25주년 후원 만찬행사가 지난 2일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신선목 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1부 환영과 교제, 2부 재학생 현황과 비

전 나눔, 3부 음악과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송정명 총장은 “WMU를 섬기는 교수진과 이사진들 등 후원자 한분 한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송 총장은 “현재 미주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계 신학

교가 120여개가 있다. 그중 남가주에 60여개가 있는데 ATS 정회원은 WMU뿐”이라며 “ATS정회원으로 미국의 주류신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는 25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89년 개교한 이래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보내는 일에 WMU가 매진해왔다. 본교가 이론 발전과 결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며 여러 후원자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다. 지난 25년처럼 앞으로 25년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학교가 되길 바라며 WMU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남종성 목사(LACISA 이플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건물 렌트

뉴저지 릿지필드팍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렌트나 매매를 합니다
- 교회도 가능합니다 -

주차장: 100대
사이즈: 11,000 SQ
토 지: 2 에이커
렌트, 매매 옵션

연락처: 646)286-9336 (Rich)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DiscMaster
BLANK CD BLANK DVD SALES
자동형 복사 &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한국교회, 새로운 100년 위해 요셉 지혜 필요”

한장총 ‘선교의 날’ 세미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달 31일 선교 지원을 마련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행사인 ‘선교의 날’을 개최했다. 경기도 용인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역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선교 동력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행사의 중심 프로그램인 세미나에서 변창욱 장신대 교수는 한국장로교 선교의 과거에 대한 평가를, 전호진 감보디아장로교신학교 총장은 현재의 상황 분석을, 오치용 출생출애굽교회 목사는 미래를 전망했다. 변 교수는 “한국교회는 교세가 성

장하기도 전인 교단 설립과 동시에 선교사업을 시작해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교회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일방통행의 선교 방식을 지양하고 현지 교회와 협의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선교사를 보내 한국교회와 현지 교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동역 선교’를 했다”고 평가했다.

전 총장은 “해외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동의 기독교 박해와 선교사 추방정책 등 갑수족 증폭되는 종교 갈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교회의 선교 역할에 대해 그는 “현지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들도 빛도 없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는 수많은 선교사가 국내

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교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독교 역사 120여년 만에 급격히 몰락할 것인가, 새로운 100년의 부흥기를 열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인 지금, 우선적으로 미리 보며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요셉의 지혜(창 41:39)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선교사와 선교사 후보생, 목회자, 평신도 등 선교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에 이어 저녁 1부 예배에서 권태진 목사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복음에 빛진 자”라며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 8575명 조사 2013 북 종교자유백서

“2009년 할머니가 중국에서 과일박스에 성경책을 담아 돌아왔는데 집에 경비대들이 들어와 과일을 먹으려고 뒤쫓다가 성경책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경비대에 잡혀 보위부로 끌려갔고 수용소에 갔습니다.”

“2008년에 아는 분이 종교죄로 잡혀갔어요.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했거든요. 라디오도 갖고 있었어요. 대학졸업생이고 4개 국어를 했어요. 이 사람은 보위부에 잡혀

없다고 답해 북한의 종교자유 선전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에서 일반적인 종교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7년 이전 탈북자와 2003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도 같은 증언을 했다.

반면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0.5%였다. 종교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57.7%는 정치범수용

(4.9%) 순이었다.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에 합법적으로 가본 적 있는지는 질문에 응답자 8175명 중 61명(0.7%)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밝힌 것과 달리 일반 주민들의 종교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 중 1.3%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자신이 종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한 응답자가 평균 5.3%였다. 또 북한에서 성경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평균 4.2%였다. 특히

“종교사범 대부분 정치범수용소 구금” 탈북자 99.7% “북 신앙 자유는 거짓”

간 뒤 행방불명됐어요.”

탈북자들이 증언한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 사례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는 증언이다.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탈북자 8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24일 발표했다.

응답한 8012명 중 7985명(99.7%)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소에, 11.9%는 교화소(한국의 교도소)에, 2.8%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종교자유백서는 “북한 당국은 심리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실제로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보고된 종교 박해 관련 사건만 해도 1034건”이라고 밝혔다. 보고된 사건 중에는 종교활동을 한 것이 51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성경 등 종교용품 소지 246건(23.8%), 종교전파 120건(11.6%), 종교인 접촉 51건

2000년 이전 탈북자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는 단 7명에 불과했지만 그후 성경을 본 탈북자는 399명이었다.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자의 현재 종교 분포는 개신교 48.0%, 천주교 10.6%, 불교 9.5% 순이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북한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 활동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랑스런 전문인선교대상’ 5명 선정

WCPM,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시상식

세계CEO전문인선교회(WCPM·대표 박형렬 목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2013 지랑스런 전문인선교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김영철 ㈜동화세상에듀코 대표를 비롯해 노병현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사무교육협의회장, 백현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오정수 ㈜

영광전자 대표, 이영철 로고스치과 병원 대표원장 등 5명이 이날 대상 상패와 선교회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북한 어린이 유류보내기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회장은 다윗물찬양단과 예

레시아찬양단 단장으로 학원 선교와 문화예술 선교에 오랫동안 봉사했다. 서울성서화운동 발기인인 백변호사는 서울 홀리클럽 사역 등을 통해 민족 복음화와 법조인 사역에 주력했다. 서울교회 창립 멤버인 오대표는 예장 통합 노회와 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 활동에 매진했고, 이원장은 교회 건축과 한국기독교산업인회(CBMC) 강서지부 창립, 북한인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랑스런 전문인선교대상’은 2008년 9월 창립된 WCPM이 전문인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문화재급 근대 ‘기독교 성지’ 잇달아 복원

기감-철원제일교회, 기침-침례교 첫 예배장소

한국 근대사와 초기 개신교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예배당이 최근 복원돼 감사예배가 드려졌다.기감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의 철원제일교회 복원 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지상 2층, 연면적 1330여㎡(약 400평) 규모로 복원됐다. 1층에는 세미나실과 역사자료실이, 2층에는 200석 규모의 예배당이 들어섰다. 잔해뿐인 옛 예배당은 2002년 등록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으며 복원된 교회 건물은 2006년 10월 총회에서 이 교회를 복원하기로 결의했으나 공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 11



월 공사를 시작했다. 기감 관계자는 30일 “조경과 내부 시설 작업 등을 끝내고 늦어도 11월 중 최종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철원제일교회는 일제시대 강원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1919년 3월 10일 이 교회 담임이던 박연서 목사를 중심으로 강원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박 목사는 또 청년 그리스도전들과 함께 철원애국단을 결성, 항일운동에 나섰다. 강종근 목사는 이 교회에서 시무하던 1940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 옥고를 치르다 순교했다.철원제일교회는 장로교 웰빙 선교사에 의해 1905년 설립됐다. 1907년 선교지역을 나누는 과정

에서 감리교로 편입됐으며 1920년 붉은 벽돌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6·25전쟁 중 폐쇄된 뒤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일부 형태만 남았다.

또 기침은 한국 침례교의 최초 예배 장소로 알려진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의 예배지를 최근 복원, 지난 17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침은 논산시 등의 지원을 받고 충남 문화재위원회와 기독교역사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슬레이트 지붕이 덮여 있던 가옥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이곳은 인천과 강경을 배로 오가며 포박 장사를 하던 침례교인 지병석씨의 자택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침례를 받은 뒤 1896년 2월 9일 부인 천선녀씨와 파울링 선교사 주부 등과 함께 처음으로 자택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ㄱ’자형 예배지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11월 향토문화유적 제38호로 지정됐다.기침 김대현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초기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용재 감독회장 복귀여부 7일 쫓 결정

금권선거 논란으로 교단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난 전용재 목사의 감독회장직 복귀 여부가 일주일 안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전용재 목사가 감리교단을 상대로 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심리에서 금권선거가 진행됐는지, 교단 재판부의 재판과정이 정당했는지 등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진술을 들은 뒤 오는 6일까지 추가서면을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용재 목사측은 지난 9월 30일에 교단 재판부가 당선무효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변론권을 박탈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법원에 당선무효판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교인들 대다수가 사회복지활동이 교회의 주요 사업이라고 여기며 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신학대 박일연 교수의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이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39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

와 장학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43.4%)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교회가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 중 가장 시급한 것(복수응답 가능)으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 구제와 봉사활동(85.1%)’을 꼽았다. 이어 교회 자체적으로 무료급식,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복지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답변이 81.7%로 뒤를 이었다.

교인 93% “교회의 사명은 구제·봉사” 호남신학대 박일연 교수 연구논문 결과

명’이라고 답했다.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경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79.3%로 가장 많았다. 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주관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53.9%가 ‘담임목사’라고 답했으며 ‘장로 권사 등 제직’이 28%로 뒤를 이었다. 교회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다고 밝힌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교회가 주로 하는 사회복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가능)은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일시적 구호활동(53.9%)’과 ‘불우이웃돕기

교인들은 교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회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89.4%) 답했다. 교회사회복지사는 신학과 사회복지학을 함께 전공한 목회자를 가장 선호했다.

박일연 교수는 “신학대학과 기독교대학에서는 신학과 사회복지학의 복수전공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나리자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Y-Shirt

양복 상,하

\$9.99

\$1.50

\$11.99

UP TO

UP TO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죽, 카페트, 매트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신로 편지

터키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메르 하바(안녕하십니까?)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가을에도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국에서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과 후원교회들의 환대를 받으며 복된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중에도 제 4권역 대표로서 한국에 나와 있는 제 4권역 사역자들과 좋은 만남들을 가졌고 8월말에는 러시아에서 제 4권역 연례전략회의(ARSM)와 러시아 지역 사역 연례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9월달에는 이스탄불 성경연구원 교수 수련회와 아이터 지역 사역 연례전략회의가 이스탄불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회의를 주님의 은혜 중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카르탈교회는 리모데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귀한 건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안식월로 가 있는 동안에 여러 동역자님들의 수고로 예배실과 교육관이 리모데링되었고 지난 9월에 예배실의 의자를 마련하고 2층의 식당과 옥상의 많은 부분이 리모데링되었습니다. 그러

나 아직도 난방시설과 전기시설 그리고 수도시설을 손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11월 말까지는 리모데링을 마치고 입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건물의 임대료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건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 새로운 기도를 올리게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카르탈교회를 새롭게 개강하고....



게 해주시고 성장케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당 3사람씩 정하여 매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 주 그들과 교제하고 3개월에 사랑의 선물을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 22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섬긴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은 분들과 우리 이웃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2월 27일 주일에는 송구영신예배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3개월 남았는데 전열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카르탈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스탄불 성경연구원은 가을학

적인 걸음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모들이 주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성경연구원 2013년 가을학기가 지난 9월 14일 개강을 하였습니다. 10명의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8명의 현지 학생과 2명의 한국사역자가 헌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레위기(김요섭 교수), 누가복음(이재욱 교수)과 성경해석학(고병 교수)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연장교육과정에는 7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번 학기에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 4권역 대표로 2013년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에서 있을 GP연례지도력회의(IDM)와 국제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쿠알라룸푸르에 갑니다. 내년 3월에 파리에서 있게 될 3차 한국선교사 국제다문화포럼에서 “이슬람과 사회”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됩니다.

성경연구원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TEE세미나가 있습니다. IBN은 12월 말에 가을학기를 종강하고 2월 중에 겨울수련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Vine대학과 Mou를 맺어 BA과정을 시작하게 됨으로 행정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카르탈교회는 11월 24일 입당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2일 크리스마스과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29일은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안식일 방문시 검사를 했는데 아내의 허리는 아직 디스크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다. 치료를 통하여 허리의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주는 한국 방문시 대학정보들을 모으고 학원에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고 3으로 대학진학을 위하여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이는 고 2이지만 아직은 대학진학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은지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에 바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동지를 떠날 것을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더 질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늘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하여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김요섭&서현렌, 명주, 명인 올림

▲GP한국본부(02-443-0883) ▲미주본부(714-774-9191)



방지일 칼럼 (15)

“본대로 들은 대로”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이 있고 다음에 할 일이 있게 된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지만 주일이라고 해서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먼저 그를 건져내야 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4:18b).

잠깐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분명한 우선순위가. 60여년 간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 육에 사느냐 영에 사느냐의 문제다. 육을 먼저 생각하느냐 영을 먼저 생각하는가의 문제이다.

의당 영을 먼저 생각하고 의당 영을 위하여 영 중심에 살아야 되면 목사를 찾아와서 그 대화할 때 보면 우선순위가 거의 육이 먼저임이 드러나곤 한다. 근자에 흔히 들리는 대로는 전도자들까지도 내세보다 현세가 더 문제 아닌가, 현실의 삶부터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등의 눈초가 더 강해 보인다. 추서자의 문제는 다음이다, 살아가는 문제부터라고 우선순위를 육에 돌의 말이 분명하다. 공자 같으신 성현도 내세를 묻는 제자에게 현세도 다 모르는데 내세 일을 어떻게 알라고 대답했다. 그의 우선순위의 순서도 현세가 먼저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일까. 시간이 있어야 주일도 지키나, 시간이 있어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한다, 시간이 있어야 예수도 믿겠다. 시간 날 때에 믿지요, 늘어 믿지요, 은퇴해서 믿지요 등등의 말은 신앙 없는 사람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죄를 인식하고 속죄 사죄함을 믿어 생명을 얻은 신앙인이 이렇게 먼저 육의 것, 현실에 급급하고 영의 일은 뒤로 둔다. 현실이 이렇게 벽처럼 현실의 딱한 문제가 풀린 다음에 교회 일은? 하는 심정이라면 그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육에 둔 생각이다. 이런 생각 하에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한 부자가 그 밤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눅12:16-19). 이 말속에 그 풍성한 소출을 누가 주신 것을 몰랐다. 우선적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심이라 육은 이를 깨닫고 환난을 당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욥1:21)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심이라. 우선순위를 거기 돌이 분명히 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라”(욥1:22) 또 부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착상했으니 그 주신 것이 많은데 이를 저축하여 두려는 자기 착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큰 창고를 짓겠다 함이다.

“좁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마6:19)하는 것을 몰랐다. 또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해졌으니 잘 먹고 잘 살며 평안을 누리자는 자기 타산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육에 현실에 두는 자를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눅12:20)로 단정하신 바이다. 우선순위를 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배상에 자선에 자리에 두는 어리석은 자라 그 영혼이 찾음을 받을 때에 깨달을까 때는 늦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마10:28)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교시 하심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전진하는가, 나는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가를 때로 점검할 것이다. 한번 결심한 것이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가, 때로 점검하면 거기 차질이 생기고 있음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의당 먼저 할 것을 순위로 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못되어짐도 내 현실이라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사는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할 가장 큰 본문인 것이다.

(1996년, 1권)

케냐

교회와 선교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지난 10개월 동안에도 부족한 중과 사역을 위하여 귀한 물질과 함께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신 모든 선교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주어진 사역 속에서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있었던 GMS 선교사원회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닫혀진 선교지를 돌아보며 열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가정을 축복하며...

결혼예식을 주례하였습니다. 4년전 저에게 세례를 받았던 에스더 청년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이 전통부족에서 자라난 신부는 복음을 접한 후 교회의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새가정을 이루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물은 생명이입니다.

저희의 복음 개발사역중의 하나인 “예수님의 샘물파기” 프로젝트는 많은 후원자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과 금년에 진행된

다른 한곳은(후원: 한국 명동교회(김용기 목사님) 이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엔 새로이 투루카나 지역에 우물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투루카나의 우물개발은 이곳 케냐에 단기 사역팀으로 사역을 했던 데이빗정(David Chong)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으로 간 그의 추모기금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지난 9월 우물개발을 위한 지질 탐사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교회사역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인중 선교사 드림
▲이메일:kang4keny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금): 오전 5:30
통도일: 오전 6:30
EM: 대략: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1:00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성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성령)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교: 오전 11:00
토요물음예배: 오후 6:00

감사헌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인영양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영아예배: 오전 9:00, 11:00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평신도 1부예배: 오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후 8:00(금)
금요예배: 오후 7:30(주일)
금요예배: 오후 8:00(주일)
중, 고, 대: 오전 11:00(주일)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KCC-함양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6시(토)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주일 5부예배: 오전 11:45
주일 6부예배: 오후 8:00
금 요 예 배: 저녁 7:30

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5(화-토)
새벽기도회: 오후 6:00(토)

등문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토렌스조운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 6부예배: 오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토요물음예배: 오후 8:00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목회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아)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호요셉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사명가꾸기(4)

지난 9월에 LA에 거주하고 있는 سالم 장애인 수련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7년 전에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받아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번에도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로 마음 설레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박모 목사님 내외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20여년전 교통사고로 두 팔을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는 15일 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경추 4, 5, 6번이 마비되어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예 아래로는 무신경이므로 그는 식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도 특수한 것으로 평소에는 누워서 사역을 하

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미리미리 서둘러 나옵니다. 한 명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늦어도 야랑곳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약하고 온전치 못함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다운스튜디오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연령은 어리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송소리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이나 진실함이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같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이의 것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박 사모님의 장애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정상인들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모두 한 식구처럼 사위우 딸이라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들은 감히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박 사모님 앞에서는 그 어느 사모들의 고민도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정상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사모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맛보게 하셨기에 그는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박모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두 팔을 잃고 아내는 평생 자

많은 것 기대하는 부부엔겐 불만과 불평 딸아 서로의 부족 알고 돕는 관계 되면 항상 행복

습니다. 하루 종일 그의 몸에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2박3일에 걸쳐 LA에 있는 미러클디저트 호텔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준비하느라 두 분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소낙비 같은 은혜의 단비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정신박약아에게도 은혜의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0살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지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깨어나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꼬부라진 손과 발로 걸으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이 넘쳐했습니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군데에서 혼란한다가 머리를 다쳐서 더 이상 군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 온 청년, 그는 통증이 올 때마다 다른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암송하며 통증을 견딘다고 합니다.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는 사람, 뇌성마비 중증환자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들은 서로 통속하기 위해 다릅니다. 정신연령은 대체로 7세, 8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와 부족도 허용이 되는 곳입니다.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틀려도 곡조가 틀려도 심지어는 특송을 하겠다고 나와서는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 아예게도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용서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약점도 받아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확실히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항상 정한 시간보다 일찍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빨리

기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시어 아내의 코칭을 받고 음반도 제작하였고 운동이나 언어구사에 뛰어난 오히려 세계 9개국으로 휠체어를 기증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의 내조는 위대합니다. 그는 남편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남편 또한 아내의 내조 없이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없는 남편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필자는 부부끼리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새삼스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부부들에게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부족을 알고 서로 도움의 관계가 철저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이마에 땀이 흐르고 고단한 생활의 연속이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익히 알고 말씀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새삼 도전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조건을 끌어당기고 있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행한 업적으로 말씀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 현저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이들에게도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려 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중말심판(겔10:1-22)찬347장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18).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난 증거로서 비극 중 비극입니다. 이가봇의 슬픈 일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삼상4:21). 여기서 우리는 심판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보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1-2). 비취 속에서 "불을 취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의의 심판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심판입니

다(13-15). 구약시대일지라도 심판하는 자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네 생물의 모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유일한 구원주요, 심판주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셋째, 일사불란한 순종을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그분들은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라"(21-22)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중말심판의 심각성을 느끼며 복음을 힘껏 전해야 합니다.

화 교만을 경계야자(겔11:1-13)찬217장

예루살렘 심판직전에 일어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락을 꾸민 교만한 지도자들의 멸망을 예언 합니다. 그 계락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5,7-11). 율수의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최후통첩의 메시지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강퍽한 마음을 가진 그

들은 백성의 마음을 이간질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어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축자영감설이 점점 무시되는 때에 더욱 더 성경에 착념하여 온갖 교만의 괴물과 맞서 겸손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딤후6:3-5).

수 하나님이 주신 소망(겔11:14-25)찬89장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무자비한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로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억압 아래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흠이 없는 그들이 모자란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17).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아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젖과 꿀을 먹는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소망입니다. 새 신(new Spirit)을 보내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일치하는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잠깐 받았을 뿐이지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목 드러난 의(겔12:1-16)찬262장

행구를 옮기는 행동을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의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가 드러났습니까? 첫째, 회개의 요구 속에 드러났습니다. 한 실물교육으로 그들을 자극시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 앞에 두렵고 정직히 선 자의 반응입니다. 둘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16). 정황을 바라본 백성들의 양

심적 고백에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는 믿음의 의를, 정죄 받는 자는 심판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얻는 복음의 의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드리고 그것을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행20:21).

금 목시를 무시한 시대(겔12:17-28)찬318장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보다 목시(revelation)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더 큰 원인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있습니까?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18)는 표징은 목시에 대한 무관심을 자극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목시에 대한 기만성이 없는 심령은 타락한 자입니다. 목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21-23)은 하나

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농담이나 장난거리로 생각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시의 성취를 무시하는 행위(26) 역시 모두 다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목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에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왜곡시키는 것은 풍랑 속의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이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착념하고 그의 빛 아래서 자기 빛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시119:105).

토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겔13:1-16)찬184장

인간 역사는 "말들의 전쟁"(the war of words)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듣기 좋도록 자기 마음 나는 대로(2-3) 행하는 예언입니다(16). 더욱이 여호와의 계시를 보지 않은 자칭 선지자의 평안하다는 예언입니다(6). 부르심이 분명치 않은 자는 허탄한 것과 점

계를 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게는 폭우와 우박당이와 폭풍이 쏟아지는 심판이 임합니다(11). 우리의 모세와 선지자인 "성경"을 낱마다 들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계시의 빛 아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87(이탈리아)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31)98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0-70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264-3181~3, (02)2646-3184 500-170 경곡광역시 북구 금곡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곡동 교당시 입산동구 용산동 1670-1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2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강동구 강3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5:30 Tel: (02)2646-3181~3, (0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520 (11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8-9989,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2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2-27동 146-7	안양 제1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2-27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9-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동 448-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2-27동 146-7
뱅크비발리데이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7:00/8:00/9:00 금요기도회: 오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5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아침 7:40 수.요.초.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특별기고

한국신학교의 선교적 사명 (하)

III. 한국 신학교에 주어진 선교의 도전

한국과 북미를 포함하여 한국 신학교가 300개가 넘는다. 한국교회 선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북미한인선교협의회(KWMC)를 통하여 열렬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약 25,000명의 한국선교사들이 17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신학교들은 아직도 신학교육을 통한 선교운동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 한국 신학교들의 선교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원주민 신학교육 양성

많은 한국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한국의 신학교와 연결시켜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 신학교 교수들이 원주민신학교에서 통역을 통하여 신학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특별히 한국 신학자들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왔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ACTS)도 매년 1-2주 동안 두 번의 특강 (Modular Course)을 통하여 여러 과목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한국 교육 부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한국 신학교 학위를 수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3. AGST-Korea학위 프로그램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는 ATA가 1984년 창설하

4. 한국 신학자 선교대회의 필요성

한국과 북미에서는 여러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KWMA(한국), KWMC(북미), 대학생선교대회, 실버 선교대회 등의 여러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에 선교학교수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한국신학자 선교협의회가 구성되어 신학자선교대회를 거행하기를 기대한다. 수천 명의 한국 신학자들에게도 선교의 비전을 넣어줄 수 있는 선교운동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신학자에 선교비전 주는 선교운동 절실히 필요
원주민 신학교육, 선교사 계속교육, 신학자선교대회 제안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제한된 접촉 국가에 직접 가서 강의하며 원주민교회 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신학교는 중국 북경에 한국선교사들이 세운 가정교회 신학교와 자매관계를 맺고 현재 대학원 레벨의 학위를 수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서울의 한 신학교는 중앙아시아 7개 국가들(Stan)을 중심으로 키르키즈스탄에 신학대학원을 세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2. 한국선교사 계속교육을 위한 선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계속 (Continuing) 신학교육을 하기 원한다.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 사역을 돕기 위하여 신학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를 원한다. 한국의 여러 대교단 신학교들은 선교지에서 한국선교사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장로교(합동)의 GMS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이 총신과 마닐라에 세워진 국제신학대학원(감활용 선교사)을 통하여 선교사 계속교육을 진행해

여 4개 학위(Th.M., Ph.D., ED., D. Min.)를 수여하게 되었다. AGST는 한 나라의 여러 신학교가 협조하여 교수와 도서관을 서로 채용할 수 있는 대학원 레벨의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AGST-Philippines은 필리핀의 9개 신학교가 협조하여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AGST-Japan은 50명의 일본 교회 지도자들, AGST-Indonesia는 12명의 이슬람 연구 학자를 배출하였다. AGST-Alliance(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신학교 교수와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에도 AGST-Korea가 2012년에 창설되었다. ATA로부터 인가를 받은 11개 신학교들이 협조하여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외국에 등록하여 외국신학 대학원으로 한국선교사 계속교육과 원주민 지도자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AGST프로그램은 ATA의 인가를 받고 있다. AGST-Korea를 통하여 한국 신학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신학교들과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교 선교사역의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다.

별써 2,000명이 넘는 한국 신학자들이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 교단신학교 대학원에서 계속 신학박사 레벨의 신학자를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북미, 유럽의 신학교에서도 계속 한국 신학자를 배출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 신학자가 신학박사학위를 갖고 신학교에서 교편을 갖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드문 상황에서 제한된 접촉 국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한국 신학자들이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향하는 한국 신학자 선교운동이 열렬히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세계복음화운동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도바울은 1세기 초대교회 때 구약 신학자로서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그의 여생을 주님께 바친 것같이 한국의 신학자들도 미전도종족 지역의 교회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 신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끝)

제 4회 불가리아 KWMF 세계한인 여성선교사 대회



KWMF 세계한인 여성선교사 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섬김과 능력” 주제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불가리아 릴라 보르베츠 호텔에서 제 4회 불가리아 KWMF 세계한인 여성선교사 대회가 열렸다. “섬김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KWMF 여성회장 김정희 선교사는 “사역지와 가정을 두고 먼 길 한 걸음에 온”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김 선교사는 “우리가 걸어도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왕이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이르렀다. 비록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들어 갈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의 말씀과 우리의 섬김은 선교지에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천국 대사로써 자긍심을 가지자.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 날 까지 사명을 다하자”며, “우리의 나눔과 소통이 나그네 인생길에 아름다운 정점이 되길 원한다.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감사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대회강사로는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KWMC공동회장, 캄보디아국제개혁신학교 총장)와 조예환 목사(갈보리교회 담임, 인터넷복음방송국 대표),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

큐티선교회 대표, KOSTA강사), 장미은 박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수), 정인순 순회선교사(Holizen Mission 대표)가 강의 및 집회를 인도했다.

일정은 15일 오후3시부터 등록을 시작해 교회예배(설교 장영춘 목사)를 드렸으며 저녁식사 후에 저녁집회는 김양재 목사가 설교했다. 16일 오전 6시30분 아침 기도회부터 저녁까지 뻘뻘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아침기도회 설교는 조예환 목사가 맡았으며 오전에 2강의씩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에는 동유럽, 북한 등 간증을 주로하고 17일에는 미니올림픽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저녁집회는 김양재 목사가 설교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장영춘 목사가 설교했다.

저녁집회 시 특송은 중국, 러시아, 남성선교사, 동유럽 등 각 지역 찬양단들이 맡았다.

전세계 초교파 여성선교사들 모임인 이 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날로 증가하는 여성선교사들만의 선교 나눔 현장으로 해마다 많은 호응을 더해가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학생들 가운데 두드러져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감사의 표현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도 섬의 있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는 학생, 강의가 끝나면 강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학생은 언제나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장 교수는 본의 아니게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을 실수로 내뱉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과와 학번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물어 보십니까? 학점을 잘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도 예수님

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기준은 감사의 모습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윌슨은 ‘하나님이 거하시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라고 했으며 괴테는 ‘유능한 사람치고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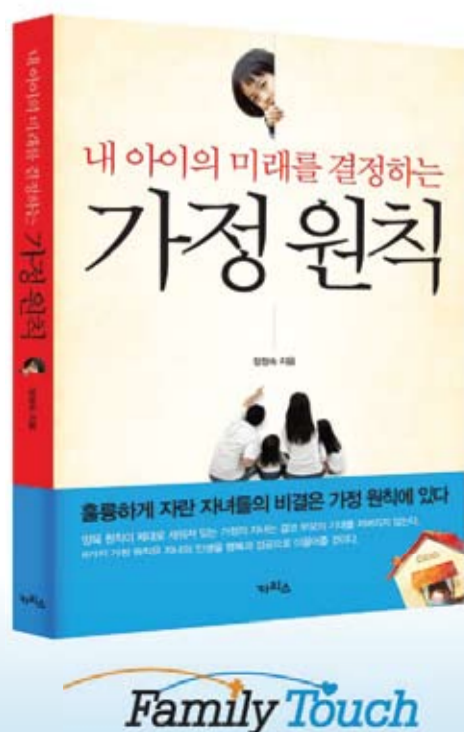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투자 자녀 양육 세미나!

가정사역센터 Family Touch에서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의 저자 정정숙 박사의 직장으로 자녀양육 강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목회자, 소셜워커, 교회학교 교사, 평신도 사역자 등 다음 세대의 양육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 기회: 자녀 양육 강사 교육

- 대상: 목회자, 소셜워커, 교회학교 교사, 평신도 사역자
- 날짜: 11월 21일 오전 9:30 ~ 오후 5:30
22일 오전 9:30 ~ 오후 12:00
- 등록비: \$350
- ※ 정정숙 박사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자녀양육 비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드립니다. (워크북, 파워포인트 화일 포함)
- ※ 비 자격증 과정 (등록:\$200)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기회: 자녀 양육 학교

- 대상: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은 모든 부모님들
- 날짜: 11월 24일 ~ 1월 12일 (8 주간)
오전 9:30 ~ 오전 11:00 (매주 일요일)
- 등록비: \$160 (교재, 워크북 포함)
- ☎ 접수문의: Family Touch, Inc.
☎ 201) 242-4422
Familytouchusa@gmail.com
240 Grand Ave. #6, Leonia, NJ 07605